

일본열도 조몽시대 후반기~야요이시대 전기의 취락과 출토유물

田崎博之
愛媛大學

머리말

본고에서는 농경화가 진행된 한반도 청동기시대와 시간적으로 병행하는 일본 서남부지역(북부 규슈·瀬戸内·近畿)의 주거지, 취락유적 그리고 출토유물(토기와 목제품)의 변천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상기의 변천에 따른 획기 설정과 농경화(특히 수도작의 전파와 수용)와 함께 당시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고찰하도록 한다.

한반도 청동기시대 조기의 돌대문토기 단계는 宮本一夫(2004), 岡田憲一·千羨幸(2006), 岡田憲一·河仁秀(2010)에 의해 북부 규슈의 조몽시대 후기 후반(이하 ‘조몽시대’와 ‘야요이시대’에 대해서는 ‘시대’를 생략함)의 미만다(三万田)식 토기단계와 시간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지적되었다. 또한 청동기시대 전기의 공열토기는 조몽 만기의 구로카와(黒川)식 토기, 후기의 송국리식 토기는 유우스(夜臼)식 토기~야요이 전기의 이타즈케(板付)II식 中段階, 원형점토대토기(수석리식 토기)는 야요이 전기의 이타즈케(板付)II식 古段階 이후와 병행한다(武末純一 2004 외). 따라서 여기서 검토할 시기는 조몽 후기(미만다(三万田)식 토기)~야요이 전기(이타즈케(板付)II식 中段階)까지이다.

또한 검토 대상의 중심지인 북부 규슈에서는 미만다(三万田)식 → 도리이바루(鳥井原)식 → 고료우(御領)식 → 히로타(廣田)식(아마기(天城)식·고가(古閑)식) → 구로카와(黒川)식 → 야마노데라(山の寺)식 → 유우스(夜臼)식(古段階·新段階) → 이타즈케(板付)I식(古段階·新段階) → 이타즈케(板付)II식(古段階·中段階·新段階)으로 토기형식의 변천을 따를 수 있다(도 19~24)¹⁾. 본고에서는 미만다(三万田)식~고료우(御領)식을 조몽 후기 후반, 히로타(廣田)식을 만기 전반, 구로카와(黒川)식을 만기 중엽으로 한다. 야마노데라(山の寺)식~유우스(夜臼)식은

1) 유우스(夜臼) 古段階는 山崎純男(1980)의 유우스(夜臼)I식, 新段階는 유우스(夜臼)IIa식, 이타즈케(板付)I식은 유우스(夜臼)IIb식과 이타즈케(板付)I식의 공반단계, 이타즈케(板付)II식 古段階는 이타즈케(板付)IIa식, 中段階는 이타즈케(板付)IIb식, 新段階는 이타즈케(板付)IIc식과 거의 대응한다. 야마노데라(山の寺)식 이후의 토기 편년에 대해서는 田崎博之의 논문(1994·2000)을 참고하기 바란다.

조몽 만기 후엽으로 보는 의견과 야요이 초기로 보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는 시대 구분의 인식에 따른 견해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목돌대문토기 단계로 부르려 한다. 또한 이타즈케(板付)Ⅰ식 古段階를 야요이 전기 초두, 新段階를 전엽, 이타즈케(板付)Ⅱ식 古段階를 전기 중엽, 中段階를 전기 후엽, 新段階를 전기 말로 하겠다.

1. 주거와 취락의 변천

조몽 후기는 조몽시대에서도 유적 수가 증가하는 시기로, 해안부의 해변 구릉 위(浜堤列上), 하천에 인접하는 하안 단구 주변, 충적평야의 자연제방 위, 선상지(扇狀地)의 끝부분(扇端), 선상지의 중앙 부분(扇央)인 강 가운데의 모래톱(舊中州)에 해당하는 미고지 위에서 유적이 조성되었다. 이는 규슈뿐만 아니라 瀬戸内, 山陰에서도 공통되는 양상이다(小池史哲 2002·2008, 九州縄文研究會 2000·2008, 濱田竜彦 2002 외). 조몽 만기의 유적 수는 적지만 산골의 고위단구 위에도 유적이 분포한다. 각목돌대문토기 단계~야요이 전기 초두에는 충적평야의 삼각주와 낮은 구릉 위에도 유적이 형성되며, 전기 전엽 이후 폭발적으로 유적 수가 증가한다.

(1) 주거의 형태와 구조

이상과 같이 유적 동향을 추적할 수 있으나 조몽 후기~만기의 유적 발굴조사 사례는 많지 않다. 하지만 주거지에 대한 집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거지의 평면형태, 노지의 형태, 기둥 구조의 변천이 밝혀졌다(九州縄文研究會 2000·2008, 水ノ江和同 2002·2012, 柳浦俊一 2009, 湯淺利彦 2009 외). 조몽시대의 연구 성과에 각목돌대문토기~야요이 전기의 자료를 추가해서 주거지의 변천을 개관하고자 한다.

① 조몽 후기~만기

조몽 후기 후반의 북부 규슈와 瀬戸内에는 직경 3~4.5m의 원형 혹은 不整圓形의 주거지(도 1-1~6, 도 4-1)가 대부분이며, 소형 隅丸方形(네 모퉁이 둥근형태의 방형)의 주거지(도 1-7)가 극히 일부 알려져 있다. 사가(佐賀)현 도수(鳥栖)시 구라노우에(藏上)유적이나 에히메(愛媛)현 마츠야마(松山)시 기타이도(北井門)유적의 주거지는 바닥이 중앙으로 향해 완만하게 경사지어 있으며 깊은 접시 모양(深皿形)을 띤다. 노지는 바닥에 설치된 것(地床爐)이 많지만 돌을 이용한 노지(石圍爐, 도 4-1)나 토기로 만든 노지(土器爐 도 1-2)도 있다. 기둥 구조는 5~7개의 기둥 구멍이 노지를 중심으로 동심원상으로 나열한 사례(도 1-1·2, 도 4-3), 주거지의 테두리 부근에 2개의 기둥 구멍을 설치한 사례(도 1-4), 노지를 사이에 두고 2개의 기둥 구멍이 있는 사례(도 4-1)가 있다. 기둥 배치는 일정하지 않고 기둥 구멍을 확인할 수 없는

주거지(도 1-5·6, 도 4-2)도 많기 때문에 정형화된 기둥 구조를 찾을 수 없다.

조몽 만기 전반~중엽에 대해 島津義昭(1976)는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조몽 후기의 원형에서 만기의 방형으로 변화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후 조사된 사례를 추가해도 이 시기의 주거지는 방형이나 隅丸方形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도 1-8~10). 주거지의 규모는 한 변이 3.5~4.5m으로 조몽 후기 후반과 공통된다. 4개의 중심 기둥(主柱)을 갖춘 사례(도 1-8)와 기둥 구멍으로 생각되는 작은 구멍(pit)이 주벽(周壁)을 따라 나열된 사례(도 1-9·10)가 있다. 노지는 바닥에 설치(地床爐)하는 경우가 많다(小池史哲 2008). 그러나 방형 주거지가 관찰되는 지역은 북부 규슈에서도 겐카이나다(玄界灘) 연안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한정된다. 한편 북부 규슈 내륙부나 남부 규슈에서는 원형 주거지가 확인된다. 瀬戸内나 近畿에서도 직경 3.5m 전후와 5.5m 전후의 크고 작은 원형 주거지가 조영된다(도 4-4·5). 이에는 노지와 기둥 구멍이 불확실한 사례도 많다.

또한 후쿠오카(福岡)현 치쿠조우마치(築上町) 마츠마루(松丸)D유적에서는 평면형이 직경 5m 전후의 원형을 띠며, 중앙수혈(灰穴²⁾)의 양 끝에 작은 구멍을 배치한 주거지가 보고되었는데(도 1-11), 이는 송국리형 주거지의 특징과 같다. 九州縄文研究會(2008)나 水ノ江和同(2002·2012)에 의하면 미야자기(宮崎)현 도우고우쵸우(東郷町) 도이다(樋田)유적 등의 남부 규슈에서는 토광 양 끝이나 양측에 작은 구멍을 배치하는 주거지가 조몽 후기 이후 산발적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주거지의 규모가 직경 3m 정도로 작은 등 송국리형 주거지와 다른 특징이 관찰된다. 규모적으로 송국리형 주거지와 공통되는 마츠마루(松丸)D유적은 주거지의 매몰과정에서 유입된 몇 점의 토기편으로 시기 비정이 가능하다. 또한 이 유적 전체에서 각목돌대문토기까지의 유물이 수습되었기 때문에 조몽 만기 중엽~각목돌대문토기 단계의 시간 폭을 설정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는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실히 등장하는 시기는 각목돌대문토기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각목돌대문토기 단계

북부 규슈에서는 평면 방형 주거지(도 1-12·13·15)와 원형 주거지(도 1-14·16·17)가 출토된다. 방형 주거지는 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4개의 기둥 구조를 갖춘 사례(도 1-12)와 주벽(周壁)에 따라 기둥 구멍으로 추정되는 작은 구멍을 나열한 사례(도 1-13)가 있다. 노지는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地床爐)와 함께 송국리형 주거지와 같이 깊은 중앙토광(灰穴爐) 양 끝에 작은 구멍을 배치하는 주거지(도 1-15)가 있다. 한편 원형 주거지에는 전형적인 송국리형 주

2) 야요이시대의 주거지 바닥 중앙에 설치된 토광에는 불을 맞은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都出比呂志(1989)는 재를 채운 ‘灰穴爐’로 보았다. 따라서 송국리형 주거지의 중앙토광도 ‘灰穴爐’로 생각된다.

거지(도 1-16·17)와 주벽(周壁) 바깥 둘레(外周)에 기둥 구멍으로 추정되는 작은 구멍을 동심원상으로 배치한 사례(도 1-14)가 있다. 또한 송국리형 주거지에는 중앙토광 양단의 작은 구멍을 다시 판 사례(도 1-17)가 있어서 재건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야요이 전기

야요이 전기 초두~후엽(이타즈케(板付) I·II식토기 단계)에는 전 시기와 같이 한 변이 3~3.5m의 소형 방형주거지가 있으나 출토 사례는 적은 편이다. 여기에는 바닥 중앙에 1개의 기둥 구멍을 배치하고 얇게 판 노지를 수반한 사례(도 1-18·23), 둘레의 벽에 따라 작은 구멍을 배치한 사례(도 1-22), 주벽(周壁)의 바깥 둘레(外周)에 기둥 구멍으로 추정되는 작은 구멍을 나열한 사례(도 1-23)가 있다. 이에 비해 원형 주거지는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중 직경 4~5m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거지에는 중앙토광 양측에 약간 거리를 두고 작은 구멍(기둥 구멍)을 설치한 송국리형 주거지(도 1-20), 이에 4개의 중심 기둥 구멍을 추가한 사례(도 1-23), 중앙토광만 있는 주거지(도 1-19)가 있다. 더구나 송국리형 주거지에는 직경 8~10m의 대형이 등장한다(도 1-21·25). 그것도 중앙토광 양측에 작은 구멍을 재배치하거나 기둥 구멍을 이중 동심원상으로 나열하는 점으로 보아 재조영 또는 확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재조영 및 확장을 실시한 직경 8m를 넘는 대형 주거지는 야요이 전기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瀬戸内나 近畿에서는 조몽 만기와 공통되는 직경 3~4m 정도의 원형 또는 타원형(도 4-8)의 주거지가 압도적으로 많고, 4~5개의 중심 기둥 구멍을 갖춘 것이 일정량 출토되기 시작한다(도 4-7·10). 전기 중엽(이타즈케(板付)II식 古段階)에는 송국리형 주거지(도 4-9)가 확인되기 시작하며 노지(地床爐)와 비교적 깊은 중앙수혈(灰穴爐)이 등장한다. 전기 후엽(이타즈케(板付)II식 中段階 병행기)의 송국리형 주거지는 미에(三重)현 마즈자카(松坂)시 수지가이(筋違)유적(도 17·18)이나 아이치(愛知)현 아사히(朝日)유적 등 이세(伊勢)만 연안지역까지 분포가 확대된다. 그러나 북부 규슈와 달리 대부분은 직경 4~5m의 주거지가 주류를 이룬다.

(2) 취락의 경관과 구조

조몽 후기~만기는 자료가 적은 탓에 아직 취락 구조를 포함한 의론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야요이시대의 취락 연구에서는 수많은 발굴조사 사례를 토대로 집단관계 분석의 기초가 되는 취락구성 최소단위의 추출, 집단관계가 누적된 사회적 구성체인 취락 구조의 이해, 취락 간의 관계와 지역사회라는 틀에서 연구되었다. 취락구성 최소단위의 추출에는 近藤義郎(1959·1962)이 제시한 “최다 5기의 수혈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단위집단’이 있다. 田中義昭(1976·1979)는 다양한 양상이 확인되는 야요이시대의 취락

유적을 ‘거점적인(형) 취락’과 ‘주변적인(형) 취락’으로 유형화시킨 후 양자가 “저습지를 경작지로 개발·경영하는 것을 통해서” 연결하는 유적군의 모습을 구상하였다. 한편, 酒井龍一(1997 외)은 각 지역에서 중핵이 되는 지속적인 대규모 취락인 ‘거점 취락’을 연결점으로 삼아 주변에 소규모·단기·후출·고지성·특정기능을 가진 취락군이 전개하는 공간적인 형상의 모델을 그렸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분업생산과 이를 지탱하는 교류관계를 ‘사람·물건·정보’의 네트워크로 부르고 지역사회의 유대원리와 광역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大井晴男(1987) 등도 지적하고 있듯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예를 들어, 近藤義郎의 ‘단위집단’에 대표되는 출토 토기로 분기한 주거지의 동시성에 대한 문제이다. 또한 대규모 거점취락은 균질적인 여러 구성단위의 집합체로 이해되는데 만약 구성단위가 균질적인 것이라면 취락상은 도식적·획일화로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야요이 문화의 시대성을 반영하는 유구로 보는 환호취락을 둘러싼 논쟁은 구체적인 취락 경관이나 구조를 제외시킨 규모의 비교나 각 요소에 대한 한정적인 의론에 치우쳐져 있다. 따라서 의론의 목적인 야요이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선행하여 그 평가가 공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현상을 이해하면서 조몽 후기 후반~야요이 전기 취락유적의 변천을 개관하고자 한다.

① 조몽 후기~만기

발굴조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조몽 후기의 취락 연구에 의하면 2~3기를 한 단위로 한 주거지가 두 개의 장소에서 동시 병존한 ‘2群化’의 취락형태가 존재한다고 한다(水ノ江和同 2002). 후쿠오카(福岡)현 가마(嘉麻)시 아미다유적에서는 조몽 후기 니시비라(西平) I 식 단계에서 1기, 니시비라(西平) II 식 단계에서 대·소 2기, 다로우자코(太郎迫) I 식 단계에서 4기(도 2-①), 미만다(三万田)식 직전의 다로우자코(太郎迫) II 식 단계~미만다(三万田)식 단계에는 두 단위의 주거지군이 동서로 30m 정도 떨어져 총 6기(도 2-③)가, 도리이바루(鳥井原)식 단계에서는 1기(도 2-④)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서도 미만다(三万田)식 단계에는 노지가 있는 2기와 없는 1기가 짝이 되는 두 단위의 주거군이 동서 30m 정도 떨어져 조성되어 있다(도 2-⑤).

사가(佐賀)현 도수(鳥栖)시 구라노우에(藏上)유적에서도 미만다(三万田)식 전반기에 2기를 한 단위로, 후반기에 3기를 한 단위로 하는 주거군이 25~30m 떨어져서 남북으로 두 군데, 도리이바루(鳥井原)식 단계에는 2기를 한 단위로 한 사례가 조사되었다(도 3). 더구나 에히메(愛媛)현 마츠야마(松山)시 기타이도(北井門)유적에서도 조몽(후기 말~) 만기 초두의 이와타(岩田)4류 토기단계에 2기를 한 단위로 한 주거군이 동서로 100m 정도 떨어져 조성되어 있다(도 5).

이러한 조몽 후기 후반~만기 초두의 북부 규슈~瀬戸内에서는 2~3기로 구성되는 주거군 이

때로는 ‘2群化’의 취락을 형성한다. 그러나 조몽토기의 한 형식이 100년 정도의 시간 폭을 가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2群化’한 주거지가 동시 병존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2~3기의 주거군이 70~100m의 제한된 범위에서 이동을 반복한 취락형태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거기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토지를 계속 영유해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소집단의 존재를 엿볼 수 있다.

조몽 만기 전반~중엽에는 유적 자체도 소규모화되고 조사 자체도 적어진다. 그 중 후쿠오카(福岡)현 하키마치(杷木町) 구리나라유적에서는 만기 중엽의 구로카와(黒川)식 단계에 직경 50m 정도의 범위에서 7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출토 유물로 보아 구로카와(黒川)식 古段階에 크고 작은 방형 주거지 2기가, 新段階에 5기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新段階에 해당하는 2기의 주거지는 중복하기 때문에 한 시기에 동시 병존한 주거지는 2~3기였다는 것과 세 시기에 걸쳐 직경 50m 정도의 주거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② 각목돌대문토기 단계

북부 규슈에서는 후쿠오카(福岡)현 이토시마(糸島)시 마가리타(曲り田)유적과 가스야초우(粕屋町) 에츠지(江辻)유적 2·3·5지점에서 각목돌대문토기 단계의 취락유적이 조사되었다. 마가리타(曲り田)유적에서는 직경 25~30m의 범위에 유우스(夜臼)식 단계의 주거지가 30기 중 복된다. 따라서 동시 병존하는 주거지 수는 파악할 수 없으나 지속적으로 일정한 주거공간을 활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瀬戸内の 도쿠시마(徳島)현 아난(阿南)시 미야노모토(宮ノ本)유적에서는 이타즈케(板付) I 식과 시간적으로 병행하는 사와다(澤田)식 단계에 비정되는 14기의 주거지가 직경 25m 정도의 범위에서 중복되고 있었다. 이 역시 일정한 범위를 지속적으로 생활공간으로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도 8).

한편, 에츠지(江辻)유적 2·3·5지점에서는 12기의 송국리형 주거지와 6기의 굴림주 건물지가 조사되었다(도 7). 남측의 제5지점에서는 묘역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취락 범위는 직경 70~100m로 추정된다. 출토 토기는 유우스(夜臼)식 토기와 함께 이타즈케(板付) I 식 古段階와 병행하는 각목돌대문토기도 있다. 이는 각목돌대문토기 단계~야요이 전기 초두의 시간 폭에서 주거지가 누적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시기에 병존한 주거지는 3기 전후였다고 생각한다. 아직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이 유적의 취락 구성을 고찰할 때 참고가 되는 것은 후쿠오카(福岡)현 다사이후(太宰府)시 마에다(前田)유적 1·4·7차 조사구의 야요이 전기 초두~중엽 취락유적이다(도 10). 직경 60~70m의 범위에 방형 주거지 11기, 굴림주 건물 1기, 저장공인 자루모양(袋狀)의 수혈이 24기 조영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병존한 주거지는 3~4기였다고 추정된다.

瀬戸内の 에히메(愛媛)현 마츠야마(松山)시 분교우(文京)유적에서는 각목돌대문토기 단계의

동심원상으로 나열한 기둥 구멍을 가진 주거지가 22기 조사되었다(도 9). 조사 지점은 선상지(扇狀地) 중앙 부분(扇央)인 강 가운데 모래톱(舊中州)에 해당하는 남북 폭 40m 정도의 미고지 위에 위치한다. 주거지가 3번에 걸쳐 중복하는 사례와 3개소에 주거지가 밀집한 사례로 보아 동시 병존한 주거지 수는 3~4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구하도의 경사면에서는 밭으로 생각되는 小溝群을 확인하였다.

③ 야요이 전기

취락유적이 급증하여, 하천유역이나 낮은 구릉, 단구를 단위로 여러 유적이 인접·조영되는 집합체를 이룬다. 이러한 집합체는 직경 2~4km로 넓어지기 때문에 ‘유적군’으로 불린다. 유적군을 구성하는 각각의 유적 규모는 다양해지며, 시기에 따라 확대·축소 혹은 폐기되지만 유적군 전체로 보면 지속적인 생활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주거역인 ‘취락유적’뿐만 아니라 묘역, 수전이나 밭 등의 생산 공간, 환경이용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산야의 공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적군’은 취락 공간의 한 단위로 이해된다. 더구나 취락유적 내의 유구를 출토 토기로 분기하면 주거지, 굴립주 건물, 자루모양(袋狀)의 수혈(저장공), 토광 등은 낮은 구릉의 꼭대기 평탄면이나 혀 모양(舌狀)으로 뻗은 구릉 사면, 단구면, 자연제방 위에 조영되며, 이를 ‘주거군’으로 부른다. 이처럼 공간 구성을 ‘유적군-취락유적-주거군’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야요이 전기~중기 초두의 취락유적군이 조사된 후쿠오카(福岡)현 오고오리(小郡)시 츠코·미츠사와(津古·三澤)유적군을 예로 들면, 이 유적군은 동서 2km, 남북 2.8km의 범위에 8개로 분기한 낮은 구릉 곳곳에 취락군이 산재한다(도 12). 취락유적은 직경 50m 정도의 범위에 토기 형식으로 보아 여러 시기에 걸쳐 주거지가 조성되었고, 주거지 주변에는 수십 기의 자루모양(袋狀)의 수혈이 분포한다. 경우에 따라 노지가 없는 헛간(納屋)이나 작업장으로 생각되는 소형 주거지가 발견된다. 주거지군과 인접해서 자루모양(袋狀)의 수혈이 조영되기 때문에 결국 직경 100m 전후의 주거군을 형성할 때도 있다(도 13~16).

구체적으로 취락유적을 개관하면 츠코·미츠사와(津古·三澤)유적군 중앙부에 위치한 후츠가우라(蓬ヶ浦)유적 B지구에서는 야요이 전기 중엽으로 비정되는 직경 5m 전후의 중형 원형 주거지와 직경 7~8m의 대형 원형주거지 총 2기로 구성되는 주거군이 두 단위(도 14①), 전기 후엽에는 대소 2기와 중형 주거지 2기의 주거군(도 14②)이 조성된다. 그런데 직경 7~8m 전후의 대형 주거지에서는 동심원상의 기둥 구멍이 중복된다. 이는 다시 조성되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후츠가우라(蓬ヶ浦)유적 B지구에서는 출토 토기로 분기된 시간 폭을 통해 2小期에 걸쳐 주거군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경우 한 시기에 병존하는 주거지는 1~2기였다.

또한 유적군 북동부에 위치하는 츠코·츠치토리(津古·土取)유적에서도 구릉 중앙부의 평탄면과 북측으로 뻗은 능선 위에 야요이 전기 중엽으로 비정되는 각각 5기의 주거군이 2단 위로 조성된다(도 13-①). 그 가운데 북측으로 뻗은 능선 위에서 발견된 5기에는 노지가 없는 소형 주거지 3기가 포함된다. 구릉 중앙부의 5기는 직경 4.8~7m 전후의 원형 주거지인데 1기에는 다시 조성된 흔적이, 2기의 중앙토광에는 2단으로 축조한 것이 관찰된다. 2단 축조한 중앙토광은 주거를 다시 조성한 흔적으로 보인다. 게다가 1기는 동시기의 토기가 출토된 자루모양(袋狀)의 수혈과 중복된다. 이어 전기 후엽에는 6기의 주거지가 조성된다. 약간 떨어져 위치한 1기는 노지가 없는 소형 주거지이며 나머지 5기는 직경 4.5~5.7m의 중형 원형 주거지이다(도 13-②). 여기서도 1기에서 다시 조성된 흔적이 관찰되며, 2기는 동시기의 토기가 수습된 자루모양(袋狀)의 수혈과 중복한다. 출토 토기로 분기된 시간 폭을 통해 2~3小期에 걸쳐 주거군이 조성되었으며, 동시 병존한 주거 수는 2~3기로 추정된다.

이상 두 유적에서 볼 수 있듯이 북부 규슈의 야요이 전기~중기 초두의 취락유적에서는 주거군을 구성하는 동시 병존한 주거지는 1~3기였다. 이것이 취락구성의 최소 단위이며, 2~3小期에 걸쳐 직경 50~100m의 범위에 지속적으로 조성된 결과 주거군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④ 환호취락의 등장

환호취락은 야요이시대의 시대성을 반영하는 유구이다. 후쿠오카(福岡)현 이타즈케(板付)유적의 야요이 전기 초두의 환호가 대표적이지만 각목돌대문토기 단계에 거슬러 올라가는 환호 취락으로 후쿠오카(福岡)시 나카(那珂)유적 37차 조사에서 확인된 이중 환호와 가스야(糟屋)군 에츠지(江辻)유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나카(那珂)유적 37차 조사의 환호에서는 유우스(夜臼)식 토기만 출토되고 있지만, 유우스(夜臼)식은 이타즈케(板付) I 식 古段階와 병행하는 시기도 포함된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이타즈케(板付)유적의 환호와 동시기가 된다. 에츠지(江辻)유적은 주거역 남측의 제5지점에 묘역이 조성되며, 북측의 溝群이나 大溝에 대응하는 구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환호취락이라 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하면 확실한 환호의 등장은 야요이 전기 초두로 비정된다.

북부 규슈에서는 후쿠오카(福岡)현 유쿠하시(行橋)시 구즈카와(葛川)유적, 무나카타(宗像)시 미츠오카나가오(光岡長尾)유적, 오고오리(小郡)시 미츠사와키타나카오(三澤北中尾)유적 등 직경 40~60m의 소규모 환호와 이타즈케(板付)유적, 나카(那珂)유적 37차 조사의 이중 환호, 아리타(有田)유적 A환호 등 직경 100m를 넘는 대규모 환호가 있다. 소규모 환호는 자루모양(袋狀)의 수혈군을 둘러싸지만 내부에 주거지가 조성된 흔적은 없다. 이에 비해 직경 100m를 넘는 대규모 환호에서는 아리타(有田)유적의 사례로 보아 내부에 주거지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규모 취락 내부 전체를 조사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야요이 전기

말의 취락유적이지만 남북 약 170m, 동서 30~40m의 범위를 목책으로 둘러싼 후쿠오카(福岡)현 오고오리(小郡)시 이치노쿠치(一ノ口)유적 I 지점의 취락유적에서 유추해보고자 한다.

이치노쿠치(一ノ口)유적 I 지점에서는 야요이 전기 말의 주거지로 비정된 31기의 유구가 보고되었다(도 16). 그러나 확실히 주거지로 판단되는 유구는 22기다. 그 중 16기는 조사 지역 남쪽 구릉 꼭대기 평탄부에 조성되어 있으며, 평탄부 테두리에 목책으로 추정되는 작은 구멍열(小穴列)로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목책 내부는 지형과 유구 배치로 3개의 구획으로 구분된다. 먼저 동쪽으로 향해 혀 모양(舌狀)으로 뻗은 구릉 사면에는 취락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도로상의 유구(절단해서 낸 출입구)가, 남쪽의 목책 사이에는 1칸×1칸의 굴립주 건물 2기와 소형의 隅丸方形(네 모퉁이 둥근형태의 방형) 주거지 1기가 배치된다. 동쪽에 위치한 도구상의 유구를 올라간 켄의 지점에는 소형의 방형주거지 1기와 3칸(3.69~3.84m)×5칸(6.27~6.64m)의 굴립주 건물 1기가 있으나 그 외에 주거지나 자루모양(袋狀)의 수혈은 없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취락의 출입구 부근의 시설군이다.

목책의 남단부에는 구릉을 가로지르는 듯이 폭 70cm의 구가 굴착되었으며, 목책 내부를 더욱 구획하는 양상을 띤다. 구획된 범위는 70×30m 정도이며, 직경 7~8m의 대형 원형 주거지 3기와 소형의 장방형 주거지 1기가 조성되었다. 그 중 2기에서는 기둥 구멍 배열을 통해 다시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출토 토기로 비정되는 시기 폭을 통해 적어도 2小期에 걸쳐서 대형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시기 당 2~3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책 내부의 대부분을 점하는 조사구 남쪽의 구릉 꼭대기 평탄부에서는 원형 주거지 9기와 장방형 주거지 2기 총 11기의 주거지군이 확인되었다. 직경 5~6m의 원형 주거지 6기, 직경 6~6.5m가 3기, 직경 7~8m가 2기로 구성되며, 주거지의 분포양상을 통해 한 단위의 주거군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6기의 원형 주거지에서는 기둥 구멍의 배열로 다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 1기는 동시기의 토기가 출토된 자루모양(袋狀)의 수혈에 인접한다. 이로 인해 동시기에 병존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출토 토기로 분기한 시간 폭을 통해 3小期에 걸쳐 5~6기가 일시기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야요이 전기 말로 비정되는 이치노쿠치(一ノ口)유적 I 지점의 목책에 둘러싼 내부는 취락의 출입구 부근의 시설군과 한 시기에 5~6기를 조성한 주거군, 목책 내부를 다시 구획한 곳에 2~3기의 주거군이 동시 조성되었다. 목책으로 둘러싼 구릉 꼭대기 평탄면은 남북 약 170m, 폭 30~40m의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직경 110×81m의 이타즈케(板付)유적의 환호나 직경 125m 정도의 나카(那珂)유적 37차 조사의 内壕와 거의 상통한다. 목책을 환호

로 바꿔 해석하면 대규모 환호 내부에도 전기 말의 이치노쿠치(一ノ口)유적 I 지점의 목책 내부와 같은 구성으로 유추된다. 즉 환호취락 내부의 주거군은 적어도 한 시기에 5~6기로 구성하는 상대적으로 큰 주거군과 환호 내부를 다시 구획한 곳에 2~3기의 주거군을 동시에 조성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타즈케(板付)유적의 경우 후대의 삭평으로 주거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자루모양(袋狀) 수혈의 분포로 보아 환호 주변 6개소에 직경 50m 정도의 주거군을 추정할 수 있으며 한 단원의 완결한 취락유적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도 11).

2. 출토 토기의 변천

(1) 토기

① 토기 형식의 변천

쥬몽 후기 후반의 미만다(三万田)식 토기는 크게 굴곡하는 동부에 최대경이 위치한 有文深鉢이 특징이다. 이는 선행하는 니시다이라(西平)식·다로우자코(太郎迫)식에서 시작하는 승문의 소멸, 마연에 의해 기벽이 빛을 내고 흑색으로 소성한 흑색마연토기화, 유문의 심발·발·천발·주구토기 등의 기종 구성이 확립한다. 이는 각목돌대문토기 직전까지 지속하는 토기 양식의 기본형이다(도 19·20, 泉拓良·千葉豊 2010, 水ノ江和同·前迫亮一 2010). 또한 유문의 심발과 함께 무문의 粗製深鉢이 출토 토기 중에서도 높은 비율을 점한다.

각목돌대문토기의 아마노데라(山の寺)식~유우스(夜臼)식 토기는 각목돌대를 구연부나 동부에 붙인 심발을 지표로 하며, ‘구로카와(黒川)식’에서 계보를 이을 수 있는 條痕 조정을 한 조제심발이나 토기 표면을 흑색마연한 천발이 공반된다. 심발의 주체는 1조의 각목돌대를 붙인 동부 포탄형과 동부 상부가 굴곡한 2조의 각목돌대 심발이다(도 21~24·26). 심발·천발·호를 중심으로 한 주요기종 구성에 발·완·고배 소량이 이에 따른다. 천발은 쥬몽 만기 전반~중엽에 비해 출토 비율이 반감하여 유우스(夜臼)식 新段階에 주요 기종은 아니게 된다(도 25). 이 단계에 새롭게 등장하는 호는 丹塗磨研되며 소형·중형·대형품이 있다. 유우스(夜臼)식 단계는 다양한 기형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도 26).

야요이 전기의 이타즈케(板付)I·II식 토기에는 각목돌대문토기의 계보를 잇는 심발이나 호도 일부 보이지만 기고가 깊고 종모양(鐘形)의 동부에 如意形の 구연을 갖춘 웅, 양파모양의 동부에 ‘ㅂ’자형으로 오므라진 경부와 구연부가 작은 나팔꽃 모양으로 외반하여 아가리·목·몸통이 단이나 침선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호, 如意形 구연의 발을 특징으로 한다(도 21~24·26). 호는 대·중·소 관계없이 거의 유사한 기형이며, 출토 비율은 20%를 넘어 40% 가까이를 점한다. 이타즈케(板付)II식 토기단계에는 瀬戸内나 近畿에서도 종모양(鐘形)의 동

부에 如意形의 구연을 갖춘 웅, 양파모양의 동부에 ‘ㅂ’자형으로 오르라진 경부와 구연부가 작은 나팔꽃 모양으로 외반한 호 등 획일적인 기형으로 변한다. 또한 출토 비율도 호가 25~40%, 웅이 50~60%, 발이 10~20%로 공통된다(도 25). 이처럼 넓은 지역에서 齊一的인 토기 양식이 성립한다. 이타즈케(板付) I · II식 토기의 호 · 웅 · 발은 대 · 중 · 소형품마다 크기가 일정한 규격화를 이룬다. 이 또한 이타즈케(板付) I · II식 토기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② 토기제작기술의 제작 공정

토기는 시기에 따라 구경부 · 동부 · 저부의 세부적인 형태, 태토의 선택, 기면 조정의 방법, 문양 등의 독립된 속성으로 구성된다. 그 속성 조합은 정형화된 제작 공정에 집약된다. 이러한 구조야 말로 우리에게 토기 양식 또는 토기 형식을 인식시키는 본질이 된다. 그 때문에 토기의 형태로 본 비교나 토기 제작기술에 대해 개별로 논하는 것보다는 각각 요소가 집약된 제작 공정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먼저 조몽 후기~만기의 토기 제작기술상의 특징은 폭 2~4cm의 점토띠를 쌓아 올려서 성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구경의 분포만을 보고 주요 기종인 심발과 발을 대 · 중 · 소로 구별하는 기준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다.

각목돌대문토기도 점토띠로 성형한다. 그러나 호는 크기(사이즈)와 상관없이 구경부 · 동부 · 저부 별로 그 실루엣은 3~4종류로 분류된다. 유우스(夜臼)식의 호는 각각 부위마다 3~4종류의 형태를 조합해서 만들어져 있다. 토기 제작자의 머리에는 구경부 · 동부 · 저부에 대한 부품의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으며 그들을 조합해서 여러 기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부품 조합형의 분할성형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각 부품의 조합에는 엄격한 규칙성은 없다. 같은 호라는 기종을 만들 때도 호의 기형마다 제작 공정이 분리되고 있다. 이는 심발이나 천발에서도 마찬가지며, 유우스(夜臼)식 토기의 제작 공정은 기종 · 기형마다 각각 독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이타즈케(板付) I · II식 토기는 점토띠를 판자 모양(板狀)으로 변형시켜서 접합해 가는 성형법이 채택되었다. 이는 深澤芳樹(1985)가 지적한 것처럼 점토판의 접합을 중간에서 중단시킴으로 系統樹와도 유사한 공정에서 여러 기형 · 기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제작 공정은 유우스(夜臼)식 토기와 같이 분할성형기법의 일종이다. 그러나 기종의 제한 없이 일련의 공정에서 여러 기형을 제작하는 점이 크게 다르다. 이것 역시 이타즈케(板付)식 토기 계보의 토기군은 점토띠를 점토판으로 변형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손 크기의 제약으로 점토판의 폭은 거의 일정하다. 그렇게 된다면 토기의 크기는 접합하는 점토판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대 · 중 · 소형품마다 거의 일정한 규격 토기가 제작되는 기술적 배경인 셈

이다.

③ 토기의 생산 상태

田崎博之(2002 · 2005 · 2007 · 2010)는 소성불완전(설구워진 것)품, 소성으로 인해 금이 간 토기(소성과열흔 토기), 금이 간 토기편, 토기 소성 시의 실패품을 통해 야요이 토기의 생산 상태를 복원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야요이 전기 초두~전엽의 이타즈케(板付)유적에서는 토기소성 실패품이 환호 남서(2차 조사 제5구)와 동부(2차 조사 제8·9구와 54·59차 조사 환호II구)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도 11). 소성으로 인해 금이 간 토기편, 소성 시 파손된 토기, 깊은 소성 파손흔으로 인해 기벽에 구멍이 날 정도로 파손된 토기를 포함한 다양한 소성 실패품을 통해 주변에서 토기 소성이 이루어져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경우 환호 남서측과 동북측에는 소규모의 주거지를 상정할 수 있으며 환호 주변에서의 토기 생산도 추정된다. 그러나 환호 바깥의 주거군에서 토기소성 실패품은 출토되지 않는다. 이는 환호 내의 주거군에서 토기가 생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환호로 둘러싼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주거군에서 집중적으로 토기제작이 실시되었을 것이다. 또한 환호 내에서 수습된 소성 실패품에는 중형 호·심발·옹 등이 있으며, 파손된 석기와 식물의 찌꺼기도 공반된다. 따라서 토기생산은 일상생활의 연장선에서 실시되는 정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용기인 토기는 기본적으로 이타즈케(板付)유적을 중심으로 남북 1.6km, 동서 1km 정도의 범위에서 전개하는 유적군에 공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환호를 둘러싼 이타즈케(板付)유적, 츠코·미츠사와(津古·三澤)유적군을 비롯해 이치노쿠치(一ノ口)유적 I 지점에서는 목책에 둘러싼 주거군에서 토기소성 시설의 벽체로 추정되는 소성 덩어리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토기 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유적군 내의 다른 취락유적이나 주거군에서는 토기소성 실패품이나 벽체로 추정되는 소성품은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치노쿠치(一ノ口)유적 I 지점의 목책으로 둘러싼 주거군에서 토기 생산이 이루어지며 유적군 전역에 공급되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주거나 주거군 단위로의 토기제작보다는 유적군 내에서 항시적으로 토기가 생산되는 체제가 정비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타즈케(板付)유적의 환호에서 수습된 소성 실패품에는 精製 소형호나 적색마연호가 대다수를 점한다. 야요이 전기 초두~중엽의 호는 출토 토기 가운데 20~40%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타즈케(板付)유적 30·31차(G-7a·7b) 조사구에서는 호가 50%를 넘는 출토 비율을 점하며, 그 중 정제 소형호나 적색마연호가 눈에 띈다. 30·31차 조사구에서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수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에 사용하던 제사용 도구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54·59차 조사 환호II구에서는 정제 소형호나 적색마연호의 소성 실패품이

많기 때문에 호의 비율이 높은 요인으로 호의 생산이 두드러지게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타즈케(板付)유적 출토 정제 소형호는 정제된 점토(거의 모래가 들어가지 않는 태토)를 이용해 정성스럽게 만든 토기이다. 이타즈케(板付)유적 주변 이외에서 출토되는 정제 소형호와는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 정제 소형호는 무덤의 부장품으로 출토되기 때문에 장송용 그릇으로 이타즈케(板付)유적에서 특별히 생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수하게 한정된 器財(=정제 소형호)의 생산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초보적인 기종 분업의 양상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품인 정제 소형호는 이타즈케(板付)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유적군 외에도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야요이 전기 중엽(이타즈케(板付)II식 古段階)이 되면 이타즈케(板付)유적에서 북서로 2.5km 정도 떨어진 히에(比惠)·나카(那珂)유적군에서도 태토의 정제도는 떨어지지만 정제 소형호의 생산이 시작된다. 초보적인 기종 분업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맹아단계의 것이기 때문에 지속성은 없다.

(2) 목제품

① 목제 용기

토기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기로 목제 접시나 완 등이 있다(도 26). 이러한 목제 용기의 출토 사례는 적지만 후쿠오카(福岡)시 사카(四箇)유적, 돗토리(鳥取)현 가츠라미(桂見)유적과 후세(布施)유적, 카가와(香川)현 나가이(永井)유적에서는 조몽 후기, 에히메(愛媛)현 마츠야마(松山)시 후나가타니(船ヶ谷)유적, 오사카(大阪)부 히가시오사카(東大阪)시 야마가(山賀)유적, 시가(滋賀)현 오오츠(大津)시 사가사토(滋賀里)유적에서는 조몽 만기 전반~중엽으로 비정되는 목제 발과 완이 출토된다. 직경 30~40cm를 넘는 중형~대형품과 칠을 바른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정제하지 않은 옷칠(生漆)을 한 경우도 있다. 제품을 만들 때는 목심이 있는 목재를 도려내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기고가 낮은 용기에서는 邊材(통나무의 겉쪽)를 이용한다.

이에 비해 야요이 전기의 목제 용기는 출토량이 급증하면서 천발·접시·완에 통·반·고배가 추가된다. 그 외에 껍형 용기나 호형·심발형 용기가 소량 출토된다. 대부분 껍질을 벗기거나 깎기만 하고 칠하지 않은 나무를 이용한다. 제품은 소·중·대형품이 있으며, 발·완·접시류는 소~중형품, 통·반류는 중~대형품이 많다. 고배도 비교적 많이 출토되지만 북부 규슈와 瀬戸内에서는 형태와 크기에 차이가 있다. 또한 기고가 낮은 접시·통·반에는 얇은 판상의 割材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껍껍질 벗기듯이 잘라낸 목재를 준비한 후 나무 용기를 제작하는 것은 야요이 전기의 큰 특징이다.

② 목제 농공구

농경을 비롯한 생산 활동에서 사용되는 목제 농공구 자료는 조몽 만기 중엽의 瀬戸内와 近畿에서 소수 출토되는 정도지만 각목돌대문토기 단계 이후 각지에서 양호한 자료가 수습된다. 다만 북부 규슈에서 유우스(夜臼)식 토기 단계의 자료는 한정되는데 비해 유우스(夜臼)식 토기~이타즈케(板付) I 식 토기와 공반되는 것은 많아진다. 瀬戸内~近畿에서 각목돌대문토기 단계로 비정되는 자료의 대부분은 후반기 북부 규슈의 이타즈케(板付) I 식과 병행하는 사와다(澤田)식 단계이며, 이타즈케(板付) II 식에 병행하는 近畿의 나가하라(長原)식~제1양식 古·中段階는 온가가와(遠賀川)식 토기와 공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북부 규슈에서는 유우스(夜臼)식 토기~이타즈케(板付) I 식 토기와 이타즈케(板付) II 식, 瀬戸内~近畿에서는 조몽 만기 중엽~각목돌대문토기 전반기와 나가하라(長原)식~제1양식 古·中段階의 병행기로 구분하여 목제 농공구의 변천을 정리하였다(도 27~30, 田崎博之 2014).

조몽 만기 중엽~이타즈케(板付) I 식 병행기에 폭이 좁은 손가락 모양(匙狀)의 몸체를 가진 호미(도 27-9·10, 도 29-6~9), 몸체의 전면이 움푹 파인 타원형의 팽이(도 29-1·2), 호리병 박 모양(瓢形)의 머리를 가진 세로 도끼(자루와 도끼 날이 직교하는 것)(도 29-10·11)가 수습된다. 호미는 가래의 일종이지만, 후술할 이타즈케(板付) II 식 단계의 호미의 폭은 15~25cm 인데 비해 폭이 10cm 이하로 좁은 손가락 모양의 몸체를 가진다. 이는 一木造로 제작되며 직경 10~15cm 정도의 통나무를 반으로 자른 목재나 변재(통나무의 겉 부분)를 사용한다. 또한 이는 뒤지개(掘棒)에서 발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굴구(경기구)이며 팔의 힘으로 흙을 푹 찢어서 파거나 휘저어 섞을 때 사용하는 중국의 ‘鏟’과 가까운 용도로 여겨진다. 후쿠오카(福岡)시 하시모토잇쵸우다(橋本一丁田)유적 2차 조사에서 출토된 타원형의 양손잡이 팽이(도 27-5)는 몸체 전면을 평탄하게 만들며, 자루 구멍이 있는 중앙부가 가장 두껍고 테두리에 향할수록 조금씩 두께가 감소하여 둘레의 전체에 날이 관찰된다. 크기도 포함하여 대구 梅川洞 유적 등지에서 출토된 타원형의 양손잡이 팽이와 동일하다. 상수리나무로 제작된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남부 반입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타즈케(板付) II 식 병행기의 야요이 전기에는 곡팽이(狹楸, 도 28-1, 30-1), 양손잡이 팽이(諸手楸, 도 28-2, 30-2), 팽이(平楸, 도 28-3, 30-3~6), 고무래(杓, 도 28-5), 가래(鋤, 도 28-6·7), 절구(竪杵, 도 28-8, 30-9), 그리고 발목 모양(撥形)의 머리를 가진 세로 도끼(縱斧直柄, 도 28-9·10, 30-10), 돌도끼 자루(反柄斧柄, 도 30-11), 돌도끼 자루(膝柄斧柄, 도 28-11, 30-12·13)가 갖춰진다. 특히 팽이는 개간구(토목구)의 성격을 가진 대형 곡팽이(狹楸), 경기구의 양손잡이 팽이(諸手楸)·팽이(平楸), 정지구의 고무래(杓), 이동·반전구의 가래로 기능이 분화되어 있다. 이에 탈곡·제분기인 절구(竪杵), 벌채용 斧身을 장착 가로 도끼(縱斧直

柄), 목재 가공을 위한 편인석부(片刃石斧)를 장착한 反柄斧柄나 膝柄斧柄를 추가하면 야요이 시대의 기본적인 목제 농공구 조합이 완성된다.

재료에 대해서 전자의 조몽 만기 중엽의 호미(手鋤)와 세로 도끼(縱斧直柄)는 직경 10~15cm의 통나무를 분할한 것이나 껍질(수피)과 가까운 변재(통나무의 겉 부분)를 이용한다. 이에 비해 야요이 전기의 절구나 세로 도끼는 직경 15~20cm 정도의 통나무를 4분할 또는 6분할한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팽이류나 기래는 직경 50cm를 넘는 대형 통나무를 굴꺾질 벗기듯이 잘라낸 목재를 이용한다. 목제 농공구의 형태와 조합뿐만 아니라 재료와 제재기술의 차이까지도 인정된다.

또한 북부 규슈의 유우스(夜臼)식 토기단계에 등장하는 목제 농공구 조합은 이타즈케(板付) I 식 병행기에는 瀬戸内로, 그리고 이타즈케(板付) II 식 병행기에는 近畿로 전파해 간다. 한편, 이타즈케(板付) I 식 병행기의 카가와(香川)현 高松市 하야시·보우지로(坊城)유적이나 야요이 전기의 와카야마(和歌山)현 다테노(立野)유적, 가타다(堅田)유적 출토 양손잡이 팽이(諸手鋤)는 조몽 만기 이래 통나무를 반으로 자른(半裁材)거나 변재가 이용되었다. 호미(手鋤)나 호리병박 모양의 머리를 가진 세로 도끼(縱斧直柄)도 瀬戸内~近畿에서는 야요이 전기까지 출토된다. 조몽 만기 중엽 이래 목제 농공구와 재료는 그대로 보유되나 목제 농공구 수용과정에서는 변용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목제 농공구와 재료의 유연한 이용에 의해 瀬戸内~近畿에서는 북부 규슈에서 볼 수 없는 곡팽이(狹楳)와 팽이(平楳)를 탄생시킴으로 지역 고유의 목제 농공구가 성립된다.

맺 음 말

본고에서는 조몽 후기 후반~야요이 전기의 주거지, 취락유적, 출토유물(토기와 목제품)의 변천을 개관하였다. 각각에서 각목돌대문토기~야요이 전기 초두(이타즈케(板付) I 식 토기단계)를 전후하여 변천의 획기를 설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문화요소의 변천에서 공유하고 있는 시대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 의론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하였다.

참고문헌

지면의 제한상 발굴보고서는 생략하였다.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泉拓良・千葉豊, 2010, 「総論 西日本縄文後期の土器」『西日本の縄文土器—後期—』pp.3-15

大井晴男, 1987, 「学説史 日本考古学における方法・方法論」『論争・学説 日本の考古学』第1巻 雄山閣

岡田憲一・千羨幸, 2006, 「二重口縁土器と孔列土器—山陰地方の縄文晩期土器と韓半島の無文土器—」『古文化談叢』第55号 pp.1-46

岡田憲一・河仁秀, 2010, 「韓半島南部終末期櫛文土器と縄文土器の年代的併行関係—韓国・東三洞貝塚出土の縄文土器を中心に—」『古文化談叢』第65号 (1) pp.21-40

九州縄文研究会, 2000, 『九州の縄文住居』(第10回 九州縄文研究会 福岡大会)

九州縄文研究会, 2008, 『九州の縄文住居Ⅱ』(第18回 九州縄文研究会 熊本大会)

小池史哲, 2002, 「九州の縄文後晩期集落—住居跡を中心に—」『考古学ジャーナル』No.485 pp.6-11

小池史哲, 2008, 「北部九州の縄文時代住居跡について」『九州の縄文住居Ⅱ』(第18回 九州縄文研究会 熊本大会)

近藤義郎, 1959, 「共同体と単位集団」『考古学研究』第21号 考古学研究会

近藤義郎, 1962, 「弥生文化論」『岩波講座 日本歴史1』岩波書店

酒井龍一, 1997, 「拠点集落と弥生社会」『弥生の世界 歴史発掘6』講談社

島津義昭, 1976, 「熊本県の考古学—最近の発掘調査とその成果—」『九州考古学』第52号

新宅信久, 1996, 「パズルの一片」『福岡考古』第17号 pp.9-20

武末純一, 2004, 「弥生時代前半期の暦年代」『福岡大学考古学論集』pp.131-156

田崎博之, 1994, 「夜臼式土器から板付式土器へ」『牟田祐二君追悼論集』pp.35-74

田崎博之, 2000, 「壺形土器の伝播と受容」『土器持寄会論文集 突帯文と遠賀川』pp.737-789

田崎博之, 2000, 「水田稲作農耕への移行—日本列島の土器・水田・農具の検討—」『韓国古代文化의 変遷과 交渉』pp. 517-586 尹世英教授停年紀念論集刊行会

田崎博之, 2002, 「焼成失敗品からみた弥生土器の生産と供給」『環瀬戸内海の考古学』pp.411-437 古代吉備研究会

田崎博之, 2005, 「焼成失敗品를 통해 본 無文土器의 生産体制—寛倉里遺蹟B区域에 대한 検討을 中心으로—」『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pp.147-214 高麗大學校考古環境研究所

田崎博之, 2007, 「土器焼成失敗品からみた焼成方法と生産体制」『土器研究の新視点—縄文から弥生時代を中心とした土器生産・焼成と食・調理』pp.181-202 六一書房

- 田崎博之, 2008, 「弥生集落の集団関係と階層性」『考古学研究』第55巻第3号' pp.60-75' 考古学研究会
- 田崎博之, 2010, 「板付遺跡出土の焼成失敗品からみた弥生時代初頭の土器生産」『板付遺跡10 環境整備遺構確認調査—環濠の調査—』(福岡市埋蔵文化財調査報告書 第1069集) pp.175-186
- 田崎博之, 2014, 「韓国青銅器時代における木製農工具の特性—日本列島西南部地域の縄文時代晩期~弥生時代前期との比較を通じて—」『東アジア古文化論攷 I』pp.300-317' 中国書店
- 田中義昭, 1976, 「南関東における農耕社会の成立をめぐる若干の問題」『考古学研究』第87号' 考古学研究会
- 田中義昭, 1979, 「弥生期における耕地と集落」『日本考古学を学ぶ (3)』pp.120-141' 有斐閣
- 都出比呂志, 1989, 『日本農耕社会の成立過程』岩波書店
- 濱田竜彦, 2002, 「山陰の縄文時代後期・晩期の集落—大山山麓地域を中心に—」『考古学ジャーナル』No.485' pp.12-15
- 深澤芳樹, 1985, 「土器のかたち」『(財)東大阪市文化財協会紀要』I' 東大阪市文化財協会
- 水ノ江和同, 2002, 「九州の縄文集落—縄文後・晩期を中心に—」『四国とその周辺の考古学』(犬飼徹夫先生古稀記念論集) pp.227-248
- 水ノ江和同・前迫亮一, 2010, 「各地域の土器編年 九州」『西日本の縄文土器—後期—』pp.21-67
- 水ノ江和同, 2012, 『九州縄文文化の研究』雄山閣
- 宮本一夫, 2004, 「北部九州と朝鮮半島南海岸地域の先史時代交流再考」『福岡大学考古学論集』pp.53-68
- 柳浦俊一, 2009, 「山陰地方における縄文時代後・晩期の集落景観」『考古学と地域文化』(一山典還暦記念論集)
- 山口譲治, 2000, 「弥生時代の木製農具—韓国光州市新昌洞遺跡出土農具から—」『韓国古代文化의 変遷과 交渉』pp.587-622' 尹世英教授停年記念論集刊行会
- 山崎純男, 1980, 「弥生文化成立期における土器の編年的研究」『鏡山猛先生古稀記念 古文化論攷』
- 湯浅利彦, 2009, 「徳島県域における縄文時代居住遺構の様相」『考古学と地域文化』(一山典還暦記念論集)

日本列島における縄文時代後晩期~弥生時代前期 の集落と出土遺物

田崎博之
愛媛大学

はじめに

本稿では、農耕化が進む韓国・青銅器時代に時間的に併行する日本列島西南部地域（九州北部・瀬戸内・近畿）の住居跡、集落遺跡、そして出土遺物（土器と木製品）の変遷を概観する。その上で、研究報告では、変遷の画期を読み取り、農耕化（特に水田稲作の伝播と受容）とともに、当時の社会に何がもたらされたかを考える。

さて、韓国・青銅器時代早期の突帯文土器段階は、宮本一夫（2004）、岡田憲一・千羨幸（2006）、岡田憲一・河仁秀（2010）によって、九州北部の縄文時代後期後半（以下、「縄文時代」と「弥生時代」については「時代」を省略する）に位置づけられる三万田（みまんだ）式土器段階に時間的に併行する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そして、青銅器時代前期の孔列土器は縄文晩期の黒川（くろかわ）式土器、後期の松菊里式土器は夜臼（ゆうす）式土器~弥生前期の板付（いたづけ）Ⅱ式中段階、そして円形粘土帯土器（水石里式土器）は弥生前期の板付Ⅱ式古段階以降に伴う（武末純一2004ほか）。したがって、本研究報告で検討の対象とする時代は、縄文後期（三万田式土器）~弥生前期（板付Ⅱ式中段階）になる。

また、検討の中心となる九州北部地域では、三万田式→鳥井原（とりいばる）式→御領（ごりょう）式→広田（ひろた）式（天城（あまぎ）式・古閑（こが）式）→黒川式→山の寺（やまのてら）式→夜臼式（古段階・新段階）→板付Ⅰ式（古段階・新段階）→板付Ⅱ式（古段階・中段階・新段階）の土器型式の変遷を追うことができる（図19~24）（註1）。本稿では、三万田式~御領式を縄文後期後半、広田式を晩期前半、黒川式を晩期中葉とする。山の寺式~夜臼式は縄文晩期後葉とする

考え方と弥生早期とする考え方が対立している。時代区分の認識をめぐる見解の違いであり、ここでは刻目凸帯文土器（きざみめとったいもんどき）段階と呼んでおく。そして、板付Ⅰ式古段階を弥生前期初頭、新段階を前葉、板付Ⅱ式古段階を前期中葉、中段階を前期後葉、新段階を前期末としておく。

1 住居と集落の変遷

縄文後期は、縄文時代の中でも遺跡数が増加する時期で、海岸部の浜堤列上、河川に近接する河岸段丘縁辺、沖積平野の自然堤防上、扇状地の扇端や扇央の旧中州にあたる微高地上でも遺跡が営まれる。それは、九州地域だけではなく、瀬戸内地域や山陰地域でも共通する（小池史哲2002・2008、九州縄文研究会2000・2008、濱田竜彦2002ほか）。縄文晩期には、遺跡数は少ないが、山間の高位段丘上にも遺跡が分布し、刻目凸帯文土器段階～弥生前期初頭には、沖積平野の三角州、低丘陵上にも遺跡が進出し、前期前葉以降、爆発的に遺跡数が増加する。

(1) 住居の形態と構造

こうした遺跡動向を把握できるが、縄文後期～晩期の遺跡の発掘調査例は未だ少ない。しかし、住居跡の集成作業が進められ、住居跡の平面形態、炉址の形態、柱構造の変遷が明らかにされている（九州縄文研究会2000・2008、水ノ江和同2002・2012、柳浦俊一2009、湯浅利彦2009ほか）。縄文時代研究の成果に、刻目凸帯文土器～弥生前期の資料を加え、まず住居跡の変遷を概観する。

①縄文後期～晩期 縄文後期後半の九州北部地域と瀬戸内地域では、径3～4.5mの円形もしくは不整円形の住居跡（図1-1～6、図4-1）がほとんどで、他に小型の隅丸方形の住居跡（図1-7）がごく少数知られている。佐賀県鳥栖市の蔵上（くらのうえ）遺跡や愛媛県松山市の北井門（きたいど）遺跡の住居跡は、床面が中央に向かって緩やかに傾斜し、深皿形の掘り形をもつ。炉址は地床炉が多く、他に石囲炉（図4-1）や土器炉（図1-2）がある。柱構造は、5～7個の柱穴が炉跡を中心として同心円上に並ぶ例（図1-1・2、図4-3）、住居跡の掘り形に接して2個の柱穴が配置される例（図1-4）、炉址を挟んで2個の柱穴がある例（図4-1）があり、柱配置は一

定せず、柱穴を確認できない住居跡（図1-5・6、図4-2）も多く、定型化した柱構造は認められない。

縄文晩期前半～中葉には、島津義昭（1976）が「住居跡の平面形が縄文後期の円形から晩期の方形に変化する」ことを指摘している。その後の調査例を加えても、当該期の住居跡は方形や隅丸方形がほとんどである（図1-8～10）。住居規模は一辺が3.5～4.5mで、縄文後期後半と共通する。4本の主柱をもつ例（図1-8）に加えて、柱穴と考えられる小穴（ピット）が周壁に沿って並ぶ例（図1-9・10）がある。炉址は地床炉が多い（小池史哲2008）。しかし、方形住居跡がみられる地域は、九州北部地域でも玄界灘沿岸を中心とする地域に限られ、九州北部地域内陸部や九州南部地域では円形住居跡が出土し、瀬戸内地域や近畿地域でも、径3.5m前後と5.5m前後の大小の円形住居跡が造られる（図4-4・5）。炉址が確認できず、柱穴も不明な例も多い。

また、福岡県築上町の松丸D遺跡では、平面形が径5m前後の円形で、両端に小穴を配置する中央土壇（灰穴炉（註2））をもつ住居跡が報告されている（図1-11）。松菊里型住居の特徴を備えている。九州縄文研究会（2008）や（水ノ江和同2002・2012）によれば、宮崎県東郷町の樋田（といだ）遺跡などの九州南部地域では、両端や両側に小穴を配置する土壇をもつ住居跡が縄文後期以降に散発的にみられる。しかし、住居跡の規模が径3mほどと小さいことなど、松菊里型住居とは異なる特徴が認められる。規模的に松菊里型住居と共通する松丸D遺跡例は、住居跡の埋没過程で流れ込んだ数個の土器片で時期が比定されており、遺跡全体では刻目凸帯文土器まで土器が出土しており、縄文晩期中葉～刻目凸帯文土器段階の時間幅でしか捉えられない。現時点では、松菊里型住居が登場する確実な時期は刻目凸帯文土器段階と考える。

②刻目凸帯文土器段階 九州北部地域では、方形の平面形をもつ住居跡（図1-12・13・15）に加えて、円形の住居跡（図1-14・16・17）が出土する。方形住居跡には、前段階と同じく、4本柱構造の例（図1-12）や、周壁に沿って柱穴と考えられる小穴が並ぶ例（図1-13）がある。炉址は地床炉とともに、松菊里型住居と同じく両端に小穴を配置する深い掘り形をもつ中央土壇（灰穴炉）を備える住居跡（図1-15）がある。また、円形住居跡には、典型的な松菊里型住居（図1-16・17）と、周壁の外周に同心円状に柱穴と考えられる小穴が並ぶ例（図1-14）がある。また、松菊

里型住居の中には、中央土壌の両端の小穴が掘り直された例（図1-17）があり、住居の建て直しを推定できる。

③弥生前期 弥生前期初頭～後葉（板付Ⅰ・Ⅱ式土器段階）には、前時期までと同じく一辺3～3.5mの小型の方形住居跡があるが、出土例は少ない。床面中央に1個の柱穴を配置し、浅い地床炉を伴う例（図1-18・23）、周壁に沿って小穴が配置される例（図1-22）、さらに掘り形の外周に柱穴と考えられる小穴が並ぶ例（図1-23）がある。これに対して、円形住居跡は圧倒的多数を占め、径4～5mの例が最も多く、中央土壌の両側に若干距離を置いて小穴（柱穴）が配置される松菊里型住居（図1-20）、4個の支柱穴が加わる例（図1-23）、中央土壌だけを設けた住居跡（図1-19）がある。さらに、松菊里型住居では径8～10mの大型住居が登場する（図1-21・25）。しかも、中央土壌の両側の小穴が配置され直されたり、二重に同心円状に柱穴が並び、建て直しや拡張が行われている。建て直しや拡張される径8mをこえる大型住居は、弥生前期の大きな特徴である。

一方、瀬戸内地域や近畿地域では、縄文晩期と共通する径3～4mほどの円形（図4-6・7）もしくは長円形（図4-8）の住居跡が圧倒的に多く、4～5個の支柱穴をもつものが一定量出土し始める（図4-7・10）。前期中葉（板付Ⅱ式古段階）には、松菊里型住居（図4-9）が出土し始め、地床炉に加えて比較的深い掘り形をもつ中央土壌（灰穴炉）が登場する。松菊里型住居は、前期後葉（板付Ⅱ式中段階併行期）には、三重県松坂市の筋違（すじかい）遺跡（図17・18）や愛知県朝日（あさひ）遺跡の伊勢湾沿岸地域まで分布を広げる。しかし、九州北部地域とは異なり、径4～5m規模の住居跡がほとんどである。

（2）集落の景観と構造

縄文後期～晩期の研究では、資料が少なく、未だ集落構造を含めた論議ができる段階に達していない。これに対して、弥生時代の集落研究では、数多い発掘調査例に基礎として、集団関係分析の基礎となる集落構成の最小単位の抽出、集団関係が累積された社会的構成体である集落構造の理解、集落間の関係と地域社会という枠組みで研究が進められてきた。集落構成の最小単位の抽出では、近藤義郎（1959・1962）の示した「最多を考えて五棟の竪穴住居のまとまり」とされる「単位集団」がある。田中義昭（1976・1979）は、多様なあり方を示す弥生時代の集落遺跡を

「拠点的（型）集落」と「周辺の（型）集落」に類型化し、両者が「低湿地を耕地として開発・経営することを通じて」結びつく遺跡群の姿を構想する。また、酒井龍一（1997ほか）は、各地域の中核となる継続的で大規模な集落である「拠点集落」を結節点として、周辺に小規模・短期・後出・高地性・特定機能を持つ集落群が展開する空間的形狀モデルを描き出し、分業生産とそれを支える交流関係を「人・物・情報」のネットワークと呼び、地域社会の紐帯原理と広域での社会的関係を説明する。

しかし、大井晴男（1987）なども指摘するように、解決すべき課題も残されている。例えば、近藤義郎の「単位集団」に代表される出土土器で分期される住居跡の同時性の問題がある。また、大規模な拠点集落は均質的な複数の構成単位の集合体として理解されるが、構成単位が均質的なものとする以上、集落像は図式的・画一化されたものにならざるをえない。さらに、弥生文化の時代性を反映する事象とされる環壕集落をめぐる論議は、具体的な集落景観や構造を抜きにした規模の比較や要素摘出的な論議に偏ったり、論議の目的である弥生文化の特性を考えることが先行し、その評価が一人歩きしている。こうした研究の現状を踏まえながら、縄文後期後半～弥生前期の集落遺跡の変遷を概観する。

①縄文後期～晩期 発掘調査例が相対的に多い縄文後期の集落研究では、2～3棟の住居跡を1単位として、2ヶ所に分かれて住居群が同時併存する「2群化」した集落形態が指摘されている（水ノ江和同2002）。福岡県嘉麻市のアミダ遺跡では、縄文後期の西平（にしびら）Ⅰ式段階には1棟、西平Ⅱ式段階には大小2棟、太郎迫（たろうご）Ⅰ式段階には4棟（図2-①）、三万田式直前の太郎迫Ⅱ式段階～三万田式段階には2単位の住居群が東西に30mほど離れて計6棟（図2-③）、鳥井原式段階には1棟（図2-④）が推定されている。その中でも、三万田式段階には、炉址がある2棟と炉址がない1棟が組み合う2単位の住居群が東西に30mほど離れて営まれる（図2-⑤）。

佐賀県鳥栖市の蔵上遺跡でも、三万田式前半期に2棟1単位、後半期に3棟を1単位とする住居群が25～30m離れて南北2ヶ所、鳥井原式段階には2棟1単位が調査されている（図3）。さらに、愛媛県松山市の北井門遺跡でも、縄文（後期末～）晩期初頭の岩田4類土器段階に、2棟を1単位とする住居群が東西に100mほど離れて営まれている（図5）。

このように、縄文後期後半～晩期初頭には、九州北部～瀬戸内地域では2～3棟か

ら構成される住居群が、時として「2群化」する集落を形成する。しかし、100年ほどと見積もられている縄文土器の1型式の時間幅を考えると、「2群化」した住居群が同時併存するとは考え難い。2～3棟の住居群が70～100mの限られた範囲で移動を繰り返す集落形態を推定することが妥当である。そこからは、長期にわたって一定の土地を継続して居住空間として占有する小集団の存在を推定できる。

縄文晩期前半～中葉には、遺跡自体も小規模な例が多く、調査例も少ない。その中で、福岡県杷木町のクリナラ遺跡では、晩期中葉の黒川式段階に、径50mほどの範囲に7棟の住居跡が出土している。出土遺物から、黒川式古段階に大小の方形住居2棟、新段階に5棟が比定でき、新段階の2棟の住居跡が重複することから1時期に同時併存する住居跡は2～3棟であること、3時期にわたって径50mほどの住居空間が継続して占有されていることを指摘できる。

②刻目凸帯文土器段階 九州北部地域では、福岡県糸島市の曲り田遺跡と、粕屋町江辻遺跡2・3・5地点で、当該期の集落遺跡が調査されている。曲り田遺跡では、径25～30mの範囲に30棟の夜臼式段階の住居跡が何重にも重複する。同時併存する住居跡数は明らかではないが、継続して一定の住居空間が占有されている。瀬戸内地域の徳島県阿南市の宮ノ本（みやのもと）遺跡では、板付Ⅰ式に時間的に併行する沢田（さわだ）式段階の14棟の住居跡が径25mほどの範囲に重複し、一定の範囲を生活空間として継続して占有する状況を確認できる（図8）。

一方、江辻遺跡第2・3・5地点では、12棟の松菊里型住居と6棟の掘立柱建物が調査されている（図7）。南側の第5地点で墓域が確認されているので、集落域の広がりには径70～100mと考えられる。出土土器には、夜臼式土器に加えて、板付Ⅰ式古段階に併行する刻目凸帯文土器もある。刻目凸帯文土器段階～弥生前期初頭の時間幅の中で住居跡が累積した結果であり、1時期に併存する住居跡は3棟前後と考えられる。正式報告書が刊行されていない江辻遺跡の集落構成を考える上で参考となるのは、福岡県太宰府市の前田（まえだ）遺跡1・4・7次調査区の弥生前期初頭～中葉の集落遺跡である（図10）。径60～70mの範囲に、方形住居跡だけが11棟、掘立柱建物1棟、貯蔵穴である袋状堅穴24基が造られる。同時併存する住居跡は3～4棟と考えられる。

一方、瀬戸内では、愛媛県松山市の文京遺跡45次調査で、刻目凸帯文土器段階の同心円状に並ぶ柱穴から22棟の住居跡が推定されている（図9）。調査地点は扇状地

の扇央の旧中州に当たる南北幅40mほどの微高地上に当たる。3重に重複する例があること、3ヶ所に住居跡が集中することから、同時併存する住居跡数は3～4棟と考えられる。さらに、旧河道の谷状の窪地への落ち際には畑跡と考えられる小溝群が出土している。

③弥生前期 集落遺跡が急増し、河川流域や低丘陵や段丘を単位として複数の遺跡が近接して営まれる集合体を見出せる。こうした集合体は径2～4kmの広がりを持ち、「遺跡群」と呼ばれている。遺跡群を構成する個々の遺跡の規模はさまざまで、時期によって拡大・縮小あるいは廃絶するが、遺跡群全体では継続した生活の痕跡が残されている。居住域である「集落遺跡」だけでなく、墓域、水田や畠の生産空間、環境利用の対象とされる山野の空間も含まれ、「遺跡群」は集落空間の1単元として捉えられる。さらに、集落遺跡内の遺構を出土土器で分期していくと、住居跡や掘立柱建物、袋状堅穴（貯蔵穴）、土壇などが、低丘陵の頂部平坦面や舌状にのびる丘陵斜面や段丘面、自然堤防上にまとまった分布をみせ、「住居群」と呼ばれている。「遺跡群－集落遺跡－住居群」という空間構成を整理できる。

弥生前期～中期初頭の集落遺跡群が調査されている福岡県小郡市の津古・三沢（つこ・みつさわ）遺跡群を例に挙げると、遺跡群は東西2km、南北2.8kmの広がりを持ち、八つ手状に分岐する低丘陵の各所に集落遺跡が散在する（図12）。集落遺跡では、径50mほどの範囲に土器型式で数時期にわたって住居跡が営まれ、住居跡の周辺に10数基の袋状堅穴が分布する。場合によっては、炉跡をもたず納屋や作業場と考えられる小型の住居跡が伴うこともある。住居跡群に近接して袋状堅穴群が伴い、結果として径100m前後の住居群が形成されることもある（図13～16）。

具体的に集落遺跡をみると、津古・三沢遺跡群の中央部に位置する蓬ヶ浦（ふつがうら）遺跡B地区では、弥生前期中葉には径5m前後の中型の円形住居跡と径7～8mの大型の円形住居跡の計2棟で構成される住居群が2単位（図14-①）、前期後葉には大小2棟と中型住居跡2棟の住居群（図14-②）が営まれる。ところが、径7～8m前後の大型住居跡では、同心円状に多数の柱穴が重複する。住居の建て替えが行われている。そうであるなら、蓬ヶ浦遺跡B地区では、出土土器で分期される時期幅の中で2小期にわたって住居群が営まれたことになる。その場合、1時期に併存する住居跡は1～2棟である。

また、遺跡群の北東部に位置する津古・土取（つこ・つちとり）遺跡では、弥生

前期中葉に、丘陵中央部の平坦面と北側に延びる尾根上に5棟からなる住居群が2単位営まれる（図13-①）。その中で、北側にのびる尾根上の5棟には、炉跡をもたない小型の住居跡3棟が含まれる。丘陵中央部の5棟は、直径4.8～7m前後の円形住居跡で、1棟では建て替えの痕跡が確認され、2棟の中央土壌は二段掘りとなっている。中央土壌の掘り直しを考えれば、住居は建て替えられていることになる。しかも、1棟は同時期の土器が出土する袋状竪穴2基と重複する。つづく前期後葉には、6棟の住居跡が造られ、やや離れて位置する1棟は炉跡がない小型住居跡で、残り5棟は直径4.5～5.7mの中型の円形住居跡である（図13-②）。ここでも、1棟で建て替えの痕跡が確認され、2棟は同時期の土器が出土する袋状竪穴と重複する。出土土器で分期できる時間幅の中で、2～3小期にわたって住居群が営まれ、同時併存の住居数は2～3棟と推定できる。

以上の2遺跡に代表されるように、九州北部地域の弥生前期～中期初頭の集落遺跡では、住居群を構成する同時併存の住居跡は1～3棟である。これが集落構成の最小単位であり、2～3小期にわたって径50～100mの範囲に継続して営まれた結果として住居群が形成されている。

④環壕集落の登場 環壕集落は弥生時代の時代性を示す事象である。福岡市板付遺跡の弥生前期初頭の環壕が代表例とされるが、刻目凸帯文土器段階に遡る環壕集落として、福岡市那珂（なか）遺跡37次調査で確認された二重環壕や、糟屋郡江辻遺跡が挙げられることがある。しかし、那珂遺跡37次調査の環壕からは夜臼式土器だけが出土しているが、夜臼式でも板付Ⅰ式古段階に併行する時期のものが含まれる。時間的には板付遺跡の環壕と同時期のものである。江辻遺跡例は、住居域の南側の第5地点には墓域が展開し、北側の溝群や大溝に対応する溝は確認されておらず、環壕集落とは言えない。したがって、確実な環壕の登場は弥生前期初頭と考える。

また、九州北部地域では、福岡県行橋市の葛川（くずかわ）遺跡、宗像市の光岡長尾（みつおか ながお）遺跡、小郡市の三沢北中尾（みつさわ きたなかお）遺跡などの径40～60mの小規模環壕と、板付遺跡、福岡市那珂遺跡37次調査の二重環壕や有田（ありた）遺跡A環壕の径100mをこえる大規模環壕の2者がある。小規模環壕は袋状竪穴群を囲い、内部に住居跡が営まれた痕跡はない。これに対して、径100mをこえる大規模環壕では、有田遺跡の事例から内部に住居跡が営まれたと考えられている。しかし、大規模環壕内部の全域が調査された事例はない。そこで、弥生前

期末の集落遺跡であるが、南北約170m、東西30~40mの範囲を柵列で囲う福岡県小郡市の一ノ口（いちのくち）遺跡Ⅰ地点の集落遺跡から類推してみたい。

一ノ口遺跡Ⅰ地点では、弥生前期末の住居跡とされる31基の遺構が報告されている（図16）。しかし、住居跡と確実に判断できる遺構は22棟である。その中の16棟が調査区南半部の丘陵頂部平坦面に営まれ、平坦面の縁辺に並ぶ柵列と考えられる小穴列で囲まれている。そして、柵列内部は、地形と遺構配置から3つの区画に区分できる。まず、東に向かって舌状にのびる丘陵斜面には、集落の出入口にあたる道路状遺構（切り通し出入り口）があり、南側の柵列間には1間×1間の掘立柱建物2棟、小型の隅丸方形の住居跡1棟が配置される。東側からの道路状遺構を登りきった地点には、小型の方形住居1棟と、3間（3.69~3.84m）×5間（6.27~6.64m）の掘立柱建物1棟があり、他に住居跡や袋状堅穴がみられない比較的広い空間が確保されている。集落の出入口付近の施設群である。

柵列南端部には丘陵を横断するように幅70cmの溝が掘られ、柵列内がさらに区画される。区画された範囲は70×30mほどで、径7~8mの大型円形住居跡3棟と小型の長方形住居跡1棟が営まれている。その中の2棟では柱穴の配列から建て替えが推定されるので、出土土器で分期される時間幅の中で、少なくとも2小期にわたって大型住居を中心として1時期2~3棟が継続して営まれていることになる。

以上を除く柵列内の大部分を占める調査区南半部の丘陵頂部平坦面では、円形住居跡9棟と長方形住居跡2棟の計11棟の住居跡群が出土している。径5~6mの円形住居跡6棟、径6~6.5mの3棟、径7~8mの2棟で構成され、住居跡の分布状況から1単位の住居群と捉えることができる。また、円形住居跡の6棟では柱穴の配列から建て替えが推定され、1棟は同時期の土器が出土する袋状堅穴がごく近接する。同時併存は考え難い。出土土器で分期できる時間幅の中で、3小期にわたり一時期5~6棟が営まれていることになる。

このように、弥生前期末の一ノ口遺跡Ⅰ地点の柵列に囲まれた内部は、集落の出入口付近の施設群と、1時期5~6棟から構成される住居群、柵列内をさらに区画した1時期2~3棟の住居群で成り立っている。柵列が囲む丘陵頂部平坦面は南北約170m、幅30~40mの広がりを持ち、径110×81mの板付遺跡の環壕や、径125mほどの那珂遺跡37次調査の内壕とほぼ共通する。柵列を環壕と読み替えるならば、大規模環壕内部にも前期末の一ノ口遺跡Ⅰ地点の柵列内と同様な構成を類推できる。つま

り、環濠集落の内部の住居群は、少なくとも、1時期5～6棟から構成される相対的に大きな住居群と、環濠内をさらに区画する1時期2～3棟の住居群で成り立っていると考える。板付遺跡の場合は、後の時代の削平で住居跡は確認されていないが、袋状堅穴の分布から環濠周辺の6ヶ所に径50mほどの住居群を推定でき、1単元の完結した集落遺跡を形成している（図11）。

2 出土遺物の変遷

(1) 土器

①土器型式の変遷 縄文後期後半の三万田式土器は、強く屈曲する胴部に最大径がある有文深鉢に特徴付けられ、先行する西平式・太郎迫式から始まる縄文の消失、研磨によって器面に光沢をもたせ黒色に焼き上げる黒色磨研土器化、有文の深鉢・鉢・浅鉢・注口土器などの器種構成が確立する。これは刻目凸帯文土器直前まで継続する土器様式の基本形である（図19・20、泉拓良・千葉豊2010、水ノ江和同・前迫亮一2010）。また、有文の深鉢に加えて、無文の粗製深鉢が出土土器の中で高い比率を占める。

刻目凸帯文土器の山の寺式～夜臼式土器は、刻目凸帯を口縁部や胴部に貼り付けた深鉢を指標とし、「黒川式土器」から系譜を追える条痕調整を施す粗製深鉢や器表面を黒色磨研した浅鉢が伴う。深鉢の主体は、砲弾型の胴部で1条刻目凸帯をもつ砲弾型と、胴部上半が屈曲する2条刻目凸帯深鉢である（図21～24・26）。器種構成では、深鉢・浅鉢・壺が主要器種で、少量の鉢・碗・高坏が伴う。浅鉢は、縄文晩期前半～中葉と比べて、出土比率が半減し、夜臼式新段階には主要器種ではなくなる（図25）。この段階に新たに登場する壺は、丹塗磨研され、小型・中型・大型品がある。夜臼式段階には器形が豊富で、多様な器形がみられることが特徴である（図26）。

弥生前期の板付Ⅰ・Ⅱ式土器には、刻目凸帯文土器の系譜を引く深鉢や壺も一部みられるが、身が深く鐘形の胴部で如意形口縁をもつ甕、玉葱型の胴部に「ハ」字形にすぼまる頸部がつき口縁部が小さな朝顔状に外反して口・頸・胴が段や沈線などで明確に区分される壺、如意形口縁の鉢を特徴とする（図21～24・26）。壺は、

大・中・小型に関係なく、ほぼ相似する器形をもち、出土比率は20%を超えて40%近くを占める。板付Ⅱ式土器段階には、瀬戸内地域や近畿地域を含めて、甕では鐘形の胴部で如意形口縁、壺では玉葱型の胴部に「ハ」字形にすばまる頸部がつき口縁部が小さな朝顔状に外反する画一的な器形が見られるようになる。また、出土比率も壺が25～40%、甕が50～60%、鉢が10～20%と共通する（図25）。広域で斉一的な土器様式が成立する。また、板付Ⅰ・Ⅱ式土器では、壺・甕・鉢は、大・中・小型品ごとに、大きさが一定して規格的である。これも板付Ⅰ・Ⅱ式土器の大きな特徴である。

②土器の製作技術の製作工程 土器は、それぞれの時期ごとに、口頸部・胴部・底部の部分的な形状、胎土の選択、器面調整の手法、文様などの独自の属性から構成され、その属性の組み合わせは、定型化された製作工程に集約される構造をもつ。こうした構造こそが、我々に土器様式あるいは土器型式を認識させる本質である。そのため、土器の形状面での比較や土器づくりの技術的側面を個々に論じるのではなく、個別要素が集約される製作工程の側面から考えていく必要がある。

まず、縄文後期～晩期土器の製作技術上の特徴は、幅2～4cmの粘土紐を積み上げて器体を成形する粘土紐づくりの成形法である。そのため、口径分布だけをみても、主要器種である深鉢や鉢の大・中・小型品の境界は曖昧である。

刻目凸帯文土器も粘土紐づくりが主である。ただし、壺は、大きさ(サイズ)に拘らず、口頸部・胴部・底部別にみると、そのシルエットは3～4種類に分類できる。夜臼式土器の壺は、それぞれの部位ごとに3～4種類みられる形を繋ぎ合わせることで作り上げられている。土器の制作者の頭に中には、口頸部・胴部・底部のパーツ(部品)の形のイメージが用意され、それらを組み合わせることで、さまざまな器形が作り出されている。それは「パーツ組み合わせ型の分割成形手法」と呼べる。ただし、各パーツの組み合わせには、あまり規則性がない。同じ壺という器種を作るのでも、壺の器形ごとに製作工程が分離されている。それは、深鉢や浅鉢でも同様であり、夜臼式土器の製作工程は器種・器形ごとに個々に独立していると言える。

これに対して、板付Ⅰ・Ⅱ式土器は、粘土棒を掌で捏ね板状に変形させながら接合していく粘土板づくりの成形法が採られている。しかも、深澤芳樹(1985)が指摘するように、粘土板の接合を途中で中止することで系統樹にも似た工程でさまざまな器形・器種が作り出される。製作工程は、夜臼式土器と同じく、分割成形技法

の一種である。しかし、器種を超えて一連の工程で様々な器形が作られる点が大きく異なる。しかも、板付式土器系譜の土器群は、粘土棒を掌で捏ねながら粘土板に変形させながら作られるので、掌の大きさに制約されて粘土板の幅はほぼ一定してくる。そうになると、土器のサイズは接合される粘土板の数によって決まる。これが、大・中・小型品ごとにほぼ一定した規格的な土器が作られる技術的な背景である。

③土器の生産様態 田崎博之(2002・2005・2007・2010)は、焼成不完全(生焼け)品、焼成破裂痕をもつ土器(焼成破裂痕土器)と焼成破裂土器片、焼成時破損土器の土器焼成失敗品から、弥生時代における土器の生産様態を復元する試みを行っている。弥生前期初頭～前葉の板付遺跡では、土器焼成失敗品が環壕の南西部(2次調査第5区)と東北部(2次調査第8・9区と54・59次調査環壕Ⅱ区)から集中して出土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できた(図11)。焼成破裂土器片、焼成時破損土器Ⅱ種、焼成破裂痕が深く器体に孔があくほど破損した焼成破裂痕土器を含む数種類の焼成失敗品があるので、周辺で土器焼成が行われていたことは確実である。その場合、環壕の南西側と東北側には、隣接して小規模な住居群が想定でき、環壕周辺での土器生産も推定できる。しかし、環壕外の住居群では土器焼成失敗品は出土していない。環壕内の住居群で土器が生産された可能性を考えるべきである。そうになると、環壕に囲まれた相対的に大規模な住居群で集中して土器づくりが行われたことになる。また、環壕内から出土した焼成失敗品には中型壺・深鉢・甕などがあり、破損した石器や食物残滓なども伴出している。したがって、土器生産は、日常生活の延長線上で行われる程度の組織化しか想定できない。日常容器としての土器の供給は、基本的には板付遺跡を中心として南北1.6km、東西1kmほどの範囲に展開する遺跡群内に収まるものと考えられる。

板付遺跡と同様に、前期末の津古・三沢遺跡群でも、一ノ口遺跡Ⅰ地点の柵列に囲まれた住居群で土器焼成施設の壁体と考えられる焼成泥土塊が出土し、土器が生産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る。しかし、遺跡群内の他の集落遺跡や住居群では土器焼成失敗品や焼成泥土塊は出土しておらず、一ノ口遺跡Ⅰ地点の柵列に囲まれた住居群で土器が生産され、遺跡群全域へ供給されたと考えてよい。住居や住居群を単位とする土器づくりではなく、遺跡群内で恒常的に土器が生産される体制が整うことが考えられる。

また、板付遺跡の環壕から出土した焼成失敗品には、精製小型壺や丹塗り磨研の壺が多い。弥生前期初頭～中葉には、壺は出土土器の20～40%を占めることが一般的である。ところが、板付遺跡30・31次（G-7a・7b）調査区では、壺が50%をこえる出土比率を占め、しかも精製小型壺や丹塗り磨研壺が目立つ。30・31次調査区では、当該期の水田が発見され、これに伴う祭祀に用いられたためと考えていた。ところが、54・59次調査環壕Ⅱ区では、精製小型壺や丹塗り磨研の壺の焼成失敗品を多く確認できたため、壺の比率が高い要因として、壺の生産が際だって多かったことを考えることができる。とくに、板付遺跡出土の精製小型壺は、きわめて精良な粘土素地を用い、ほとんど砂粒が混じらない胎土の丁寧なつくりの精製品である。板付遺跡周辺以外で出土する精製小型壺とは一見して区別できる。精製小型壺は、墓の副葬品として出土するので、葬送用の器として板付遺跡で特別に生産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特殊で限定された器財（＝精製小型壺）の生産を集中して行う初歩的な器種分業を想定できる。そうした特殊品としての精製小型壺は板付遺跡を中心とする遺跡群外にも供給された可能性が高い。ただし、弥生時代前期中葉（板付Ⅱ式古段階）になると、板付遺跡から北西に2.5kmほど離れた比恵・那珂遺跡群でも、胎土の精選度が劣るとはいえ、精製小型壺の生産が始まる。初歩的な器種分業を読み取れるとは言っても、あくまでも萌芽段階のものであり、継続性は読み取れない。

（2）木製品

①木製容器 土器とともに、日常生活に用いられる容器として、木製の皿や碗などがある（図26）。こうした木製容器の出土例は少ないが、福岡市四箇（しか）遺跡、鳥取県桂見（かつらみ）遺跡と布施（ふせ）遺跡、香川県永井（ながい）遺跡では縄文後期、愛媛県松山市の船ヶ谷（ふながたに）遺跡、大阪府東大阪市の山賀（やまが）遺跡、滋賀県大津市の滋賀里（しがさと）遺跡では縄文晩期前半～中葉の木製の鉢や碗が出土している。直径30～40cmをこえる中型～大型品がほとんどを占め、漆塗り製品が多く、生漆を塗布する例もある。木取りは芯持ち材の削り抜き、高さの低い容器では辺材が利用されている。

これに対して、弥生前期の木製容器は、出土量が急増し、浅鉢・皿・碗に、槽・盤・高杯が主要器種として加わり、他に少量のコップ形容器や壺形・深鉢形容器が

ある。白木づくりのものがほとんどで、小・中・大型品があり、鉢・碗・皿類は小～中型品、槽・盤類は中型～大型品が多い。高杯も比較的多く見られるが、九州北部地域と瀬戸内地域では形やサイズの違いがある。また、高さの低い皿・槽・盤には薄い板状の割材が用いられる。こうしたミカン割材が素材として準備された上で木製容器が生産されることは、縄文後期～晩期と異なる弥生時代前期の大きな特徴である。

②木製農工具 農耕をはじめとする生産活動に用いられる木製農工具の資料は、縄文晩期中葉に瀬戸内や近畿で点々と出土している程度であるが、刻目凸帯文土器段階以降、各地で良好な資料が出土している。ただし、九州北部地域では、夜臼式土器段階に限定できる資料は限られ、夜臼式土器～板付Ⅰ式土器に伴うものが多い。瀬戸内～近畿地域では、刻目凸帯文土器段階とされる資料の大半は後半期の北部九州の板付Ⅰ式に併行する沢田式段階のもので、板付Ⅱ式に併行する近畿地域の長原式～第1様式古・中段階の遠賀川式土器に伴う資料が多い。そこで、北部九州では夜臼式～板付Ⅰ式土器と板付Ⅱ式、瀬戸内～近畿では縄文晩期中葉～刻目凸帯文土器前半期と長原式～第1様式古・中段階の併行期に分期して、木製農工具の変遷を整理した(図27～30、田崎博之2014)。

縄文晩期中葉～板付Ⅰ式併行期には、狭い匙状の身をもつ手鋤(図27-9・10、図29-6～9)、身の前面が窪む楕円形の鍬(図29-1・2)、瓢形の頭部をもつ縦斧直柄(図29-10・11)が出土している。手鋤は、鋤の一種ではあるが、後述する板付Ⅱ式段階の鋤の身幅が15～25cmであるのに対して、幅が10cm以下と狭い匙状の身部をもつ。一木づくりで、直径10～15cmほどの丸太の半裁材や辺材を用いる。掘り棒から発達したと考えられる土掘り具(耕起具)で、腕力で土に突き刺し掘り起こしたり攪拌する中国の「鏟」に近い用途を推定できる。また、福岡市の橋本一丁田(はしもと いっちょうだ)遺跡2次調査で出土している楕円形の諸手鍬(図27-5)は、鍬身前面を平坦に作り、柄孔のある中央部が最も厚く、周縁に向かって緩やかに厚みを減じ、全周に刃が作られる。大きさも含めて、大邱の梅川洞遺跡などで出土している楕円形の諸手鍬そのものである。クヌギ材で作られていることから、韓半島南部からの搬入品である可能性が高い。

板付Ⅱ式併行期の弥生前期には、狭鍬(図28-1、30-1)、諸手鍬(図28-2、30-2)、平鍬(図28-3、30-3～6)、杵(図28-5)、鋤(図28-6・7)、竪杵(図28-8、

30-9)、そして撥形の頭部をもつ縦斧直柄(図28-9・10、30-10)、反柄斧柄(図30-11)、膝柄斧柄(図28-1130-12・13)が揃う。とくに、鍬は、開墾具(土木具)としての性格をもつ大型の狭鍬、耕起具としての諸手鍬・平鍬、整地具としての杵、移動・反転具としての鋤に機能分化している。これに、脱穀・製粉具としての竪杵、伐採用斧身を装着する縦斧直柄、木材加工のための片刃石斧を装着する反柄斧柄や膝柄斧柄が加わり、弥生時代の基本的な木製農工具の組み合わせが完成する。

用材についても、前者の縄文晩期中葉の手鋤や縦斧直柄では、径10～15cmの丸木の分割材や樹皮近くの辺材が利用される。これに対して、弥生前期の木製農工具では、竪杵や縦斧直柄で径15～20cmほどの丸木を四分分割材もしくは六分割材を用いる一方で、鍬類や鋤は直径50cmを大きく超える大径材をミカン割りした材を用いる。木製農工具の形状や組み合わせだけでなく、用材も異なり、製材技術の違いを読み取れる。

また、九州北部地域の夜臼式土器段階に登場する木製農工具の組み合わせは、板付Ⅰ式併行期には瀬戸内へ、そして板付Ⅱ式併行期には近畿へと伝播していく。その一方で、板付Ⅰ式併行期の香川県高松市の林・坊城(はやし・ぼうじろ)遺跡や、弥生時代前期の和歌山県の立野(たての)遺跡や堅田(かただ)遺跡の諸手鍬は、縄文晩期以来の丸木の半裁材や辺材が用いられている。手鋤や瓢形の頭部をもつ縦斧直柄も、瀬戸内～近畿では弥生前期まで残存する。縄文晩期中葉以来の木製農工具と用材利用が保持され、木製農工具の受容過程にみられる変容現象を生じさせている。こうした柔軟な木製農工具と用材利用によって、北部九州ではみられない瀬戸内～近畿独自の狭鍬や平鍬が生み出され、地域に固有の木製農工具が成立する。

おわりに

本稿では、縄文後期後半～弥生前期の住居跡、集落遺跡、そして出土遺物(土器と木製品)の変遷を概観した。それぞれで刻目凸帯文土器～弥生前期初頭(板付Ⅰ式土器段階)を前後して変遷の画期を設定できる。しかし、問題は個々の文化要素の変遷に通底する時代性の読み取りである。研究発表では、その論議に焦点を絞って報告する。

【註】

1. 夜臼式古段階は山崎純男（1980）の夜臼Ⅰ式、新段階は夜臼Ⅱa式に、板付Ⅰ式は夜臼Ⅱb式と板付Ⅰ式の共伴段階、板付Ⅱ式古段階は板付Ⅱa式、中段階は板付Ⅱb式、新段階は板付Ⅱc式にほぼ対応する。山の寺式以降の土器編年については田崎博之（1994・2000）を参照されたい。
2. 弥生時代の住居跡の床面中央に位置する土壇では、火熱痕跡が残っていない例が多い。都出比呂志（1989）は、灰を詰め込んだ「灰穴炉」とする。松菊里型住居の中央土壇も「灰穴炉」と考える。

【引用文献】 紙面の都合で、発掘調査報告書は割愛した。寛恕願いたい。

- ・ 泉拓良・千葉豊2010「総論 西日本縄文後期の土器」『西日本の縄文土器—後期—』pp.3-15
- ・ 大井晴男1987「学説史 日本考古学における方法・方法論」『論争・学説 日本の考古学』第1巻、雄山閣
- ・ 岡田憲一・千羨幸2006「二重口縁土器と孔列土器—山陰地方の縄文晩期土器と韓半島の無文土器—」『古文化談叢』第55号、pp.1-46
- ・ 岡田憲一・河仁秀2010「韓半島南部終末期櫛文土器と縄文土器の年代的併行関係—韓国・東三洞貝塚出土の縄文土器を中心に—」『古文化談叢』第65号（1）、pp.21-40
- ・ 九州縄文研究会2000『九州の縄文住居』（第10回 九州縄文研究会 福岡大会）
- ・ 九州縄文研究会2008『九州の縄文住居Ⅱ』（第18回 九州縄文研究会 熊本大会）
- ・ 小池史哲2002「九州の縄文後晩期集落—住居跡を中心に—」『考古学ジャーナル』No.485、pp.6-11
- ・ 小池史哲2008「北部九州の縄文時代住居跡について」『九州の縄文住居Ⅱ』（第18回 九州縄文研究会 熊本大会）
- ・ 近藤義郎1959「共同体と単位集団」『考古学研究』第21号、考古学研究会
- ・ 近藤義郎1962「弥生文化論」『岩波講座 日本歴史1』岩波書店
- ・ 酒井龍一1997「拠点集落と弥生社会」『弥生の世界 歴史発掘6』講談社
- ・ 島津義昭1976「熊本県の考古学—最近の発掘調査とその成果—」『九州考古学』第52号
- ・ 新宅信久1996『パズルの一片』『福岡考古』第17号、pp.9-20
- ・ 武末純一2004「弥生時代前半期の暦年代」『福岡大学考古学論集』pp.131-156
- ・ 田崎博之1994「夜臼式土器から板付式土器へ」『牟田祐二君追悼論集』pp.35-74
- ・ 田崎博之2000「壺形土器の伝播と受容」『土器持寄会論文集 突帯文と遠賀川』pp.737-789
- ・ 田崎博之2000「水田稲作農耕への移行—日本列島の土器・水田・農具の検討—」『韓国古代文化税 変遷引 交渉』pp.517-586、尹世英教授停年記念論集刊行会
- ・ 田崎博之2002「焼成失敗品からみた弥生土器の生産と供給」『環瀬戸内海の考古学』pp.411-437、古代吉備研究会
- ・ 田崎博之2005「焼成失敗品를 통해 본 無文土器税 生産体制—寛倉里遺蹟B区域에 대한

- 検討를 中心으로－」『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pp.147-214、高麗大學校考古環境研究所
- ・田崎博之2007「土器焼成失敗品からみた焼成方法と生産体制」『土器研究の新視点－縄文から弥生時代を中心とした土器生産・焼成と食・調理』pp.181-202、六一書房
 - ・田崎博之2008「弥生集落の集団関係と階層性」『考古学研究』第55巻第3号、pp.60-75、考古学研究会
 - ・田崎博之2010「板付遺跡出土の焼成失敗品からみた弥生時代初頭の土器生産」『板付遺跡10 環境整備遺構確認調査－環濠の調査－』（福岡市埋蔵文化財調査報告書 第1069集）pp.175-186
 - ・田崎博之2014「韓国青銅器時代における木製農工具の特性－日本列島西南部地域の縄文時代晩期～弥生時代前期との比較を通じて－」『東アジア古文化論攷Ⅰ』pp.300-317、中国書店
 - ・田中義昭1976「南関東における農耕社会の成立をめぐる若干の問題」『考古学研究』第87号、考古学研究会
 - ・田中義昭1979「弥生期における耕地と集落」『日本考古学を学ぶ（3）』pp.120-141、有斐閣
 - ・都出比呂志1989『日本農耕社会の成立過程』岩波書店
 - ・濱田竜彦2002「山陰の縄文時代後期・晩期の集落－大山山麓地域を中心に－」『考古学ジャーナル』No485、pp.12-15
 - ・深澤芳樹1985「土器のかたち」『（財）東大阪市文化財協会紀要』Ⅰ、東大阪市文化財協会
 - ・水ノ江和同2002「九州の縄文集落－縄文後・晩期を中心に－」『四国とその周辺の考古学』（犬飼徹夫先生古稀記念論集）pp.227-248
 - ・水ノ江和同・前迫亮一2010「各地域の土器編年 九州」『西日本の縄文土器－後期－』pp.21-67
 - ・水ノ江和同2012『九州縄文文化の研究』雄山閣
 - ・宮本一夫2004「北部九州と朝鮮半島南海岸地域の先史時代交流再考」『福岡大学考古学論集』pp.53-68
 - ・柳浦俊一2009「山陰地方における縄文時代後・晩期の集落景観」『考古学と地域文化』（一山典還暦記念論集）
 - ・山口譲治2000「弥生時代の木製農具－韓国光州市新昌洞遺跡出土農具から－」『韓国古代文化税 変遷引 交渉』pp.587-622、尹世英教授停年記念論集刊行会
 - ・山崎純男1980「弥生文化成立期における土器の編年的研究」『鏡山猛先生古稀記念古文化論攷』
 - ・湯浅利彦2009「徳島県域における縄文時代居住遺構の様相」『考古学と地域文化』（一山典還暦記念論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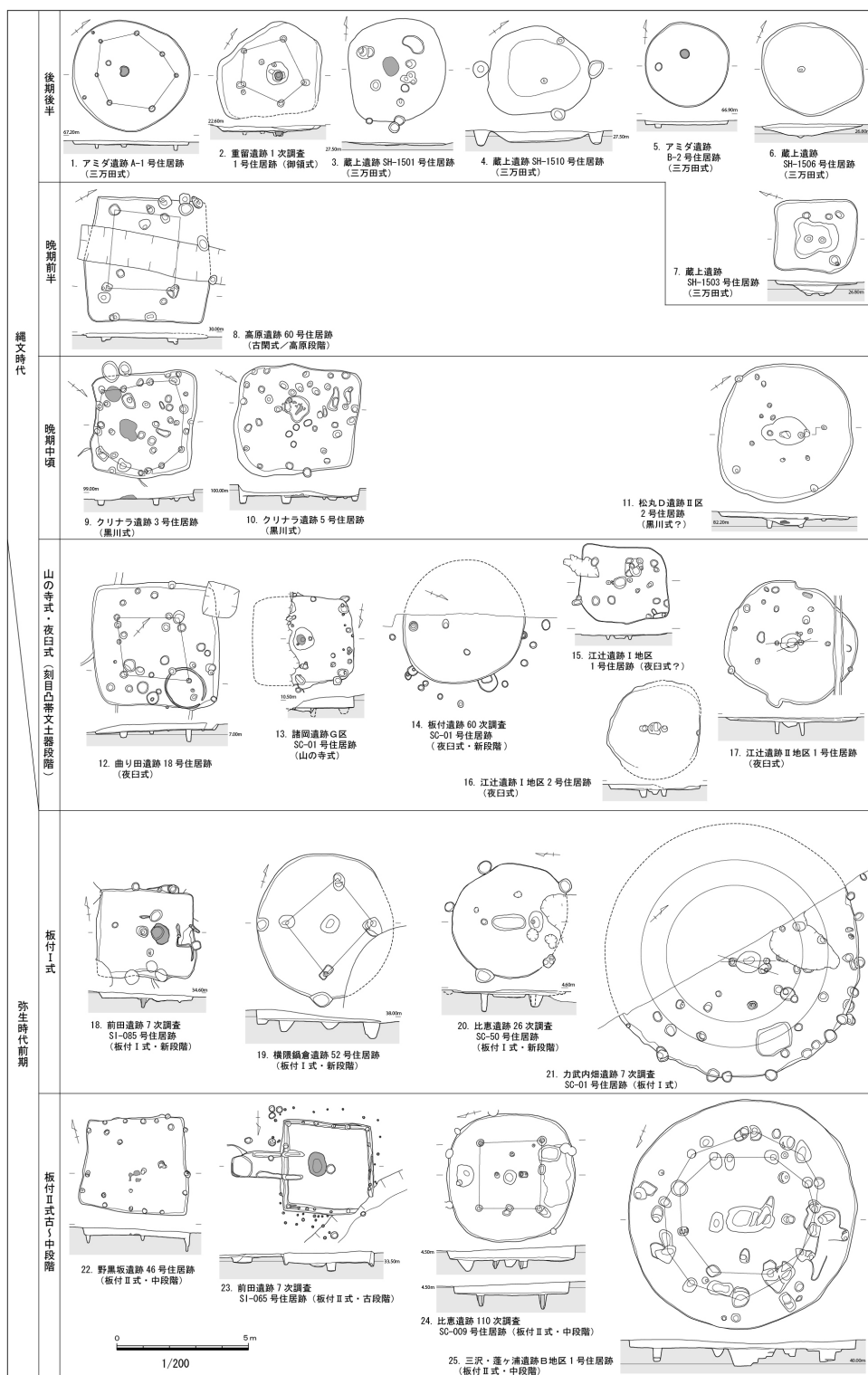


図1 北部九州における縄文時代後期後半～弥生時代前期後葉の住居跡の変遷 (縮尺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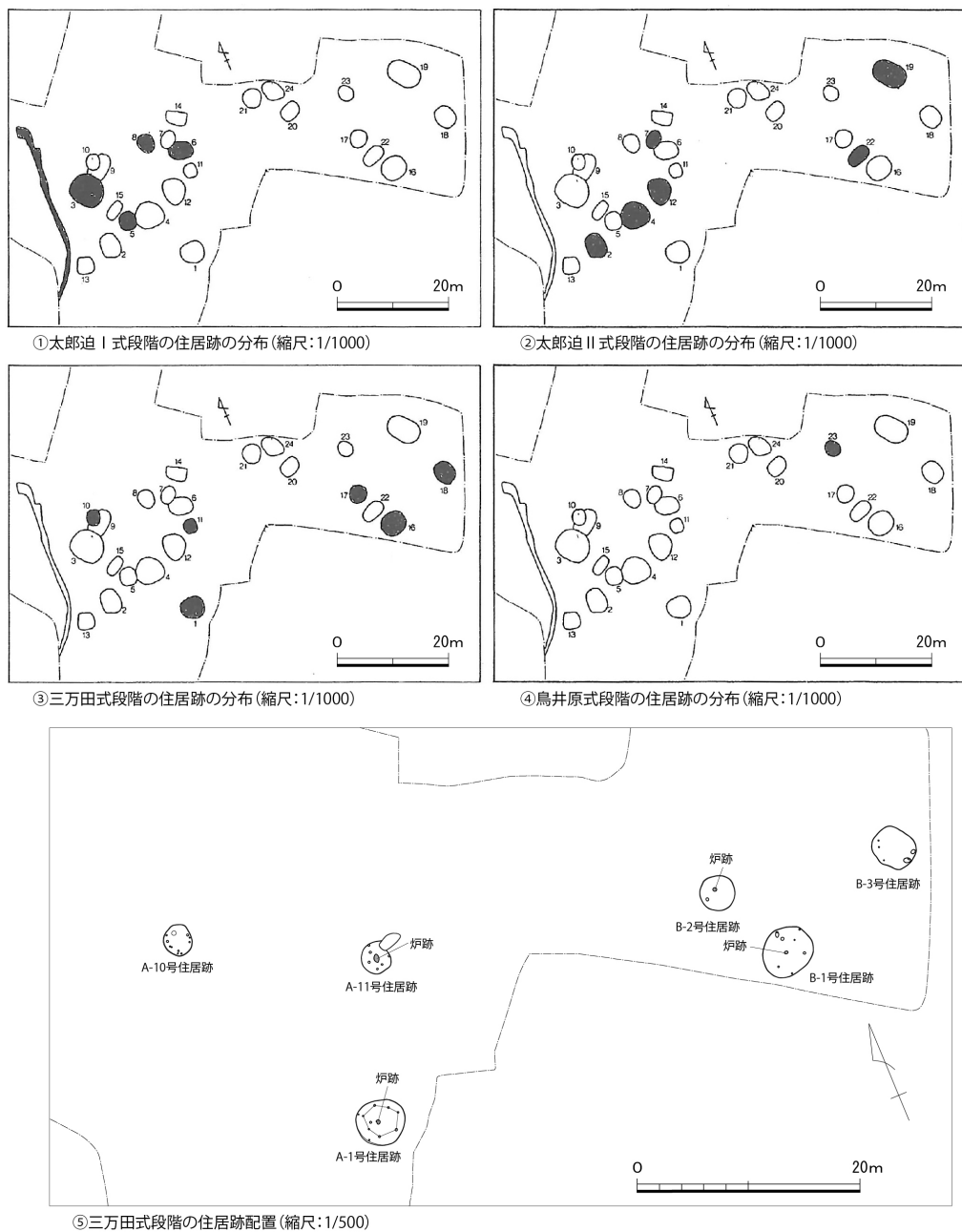


図2 福岡県嘉麻市アミダ遺跡の縄文時代後期(太郎迫Ⅰ式~鳥井原式)の集落変遷(①~④は水ノ江2002から転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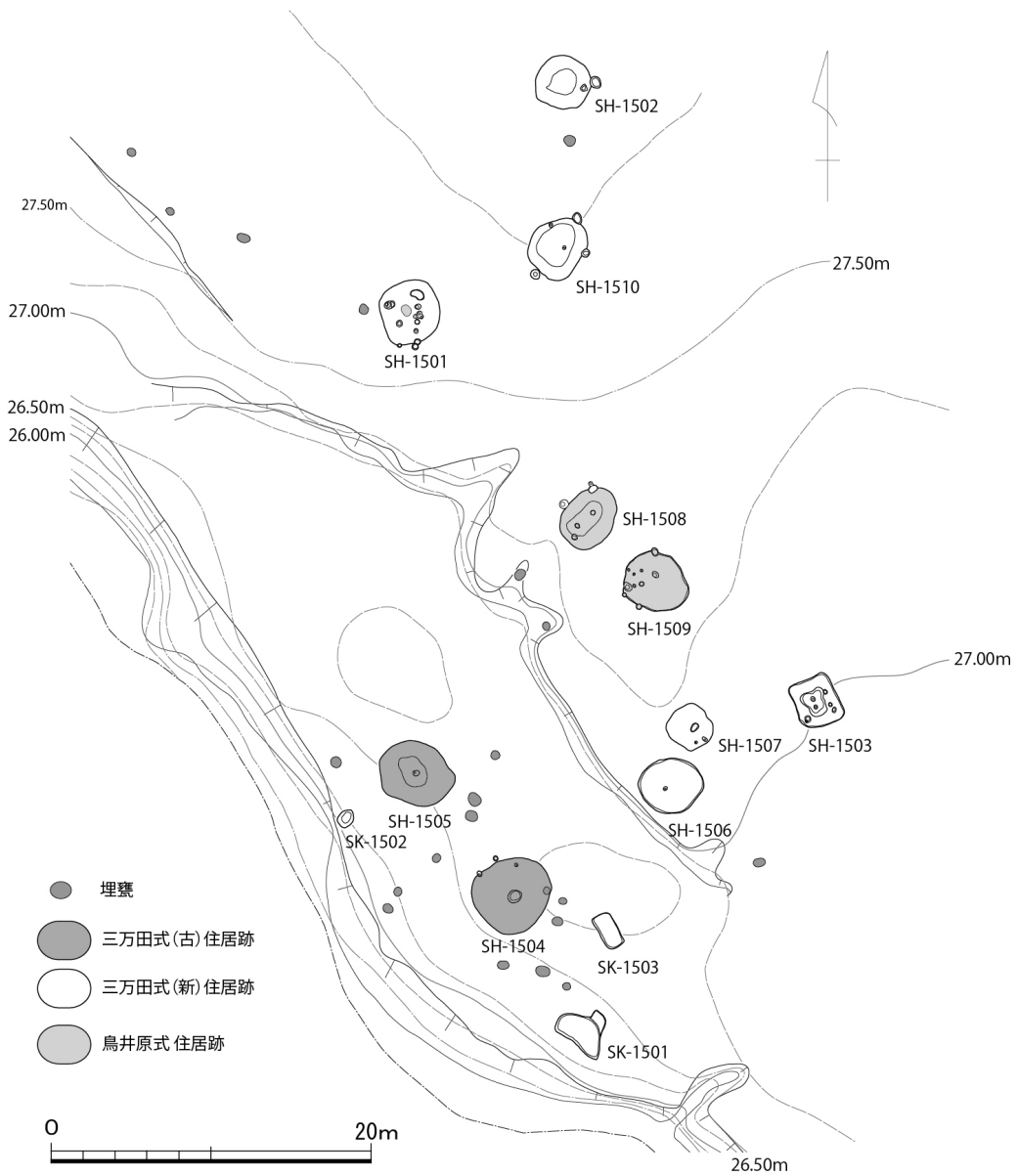


図3 佐賀県鳥栖市蔵上遺跡の縄文時代後期後半(三万田式～鳥井原式)の集落変遷(縮尺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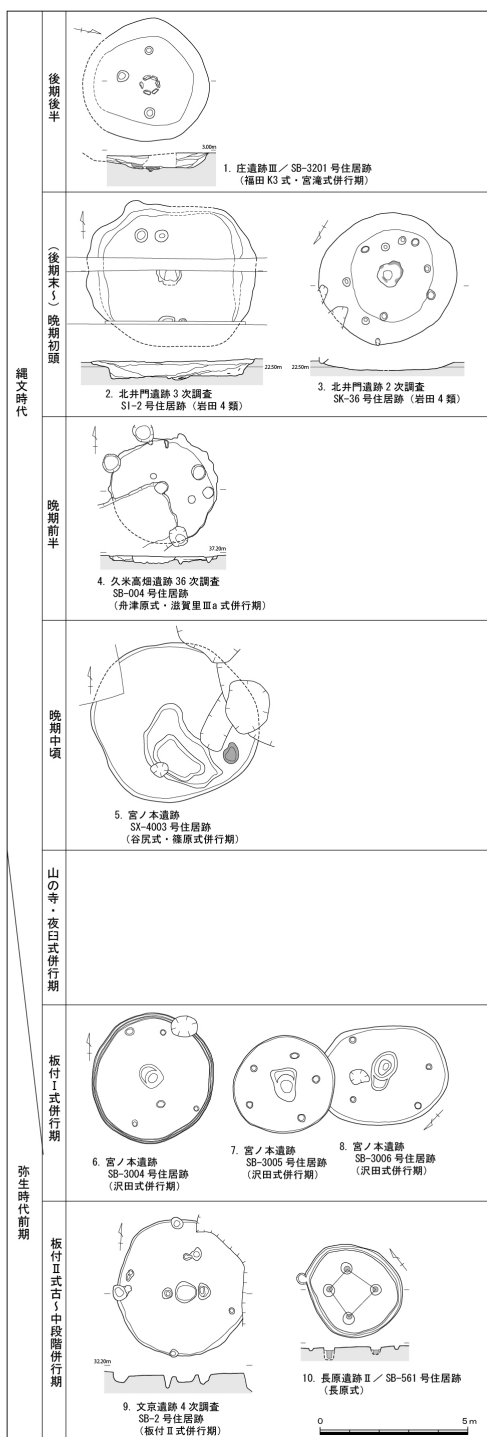


図4 瀬戸内・近畿における縄文時代後期後半～
弥生時代前期後葉の住居跡の変遷 (縮尺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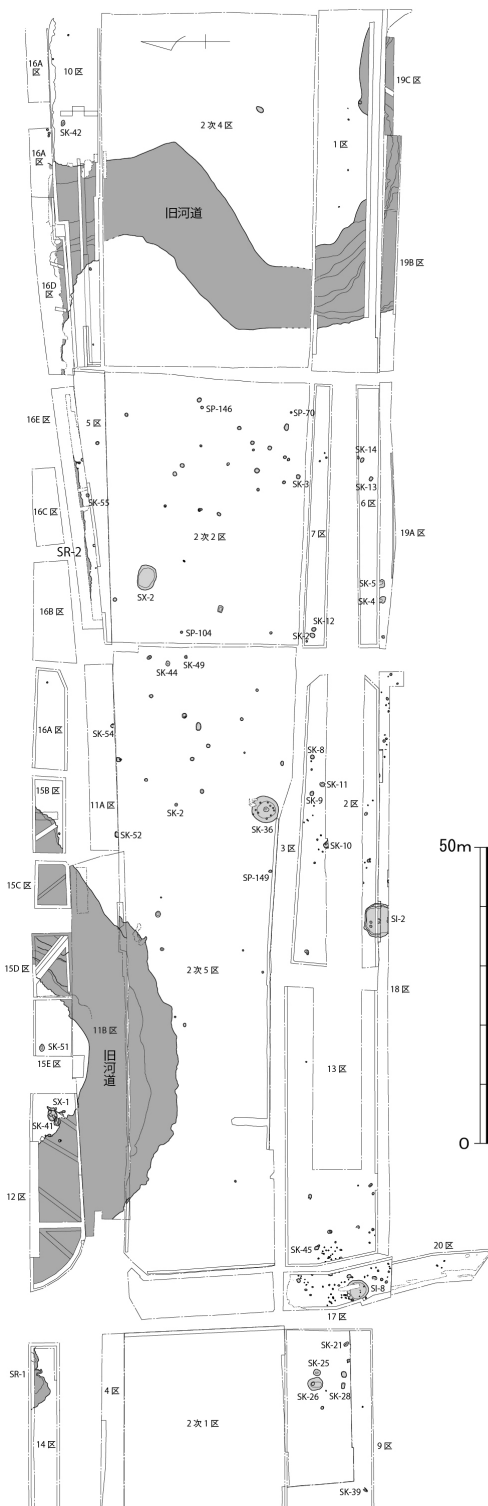


図5 愛媛県松山市北井門遺跡の縄文時代後期末
～晩期初頭(岩田Ⅳ類)の集落変遷 (縮尺 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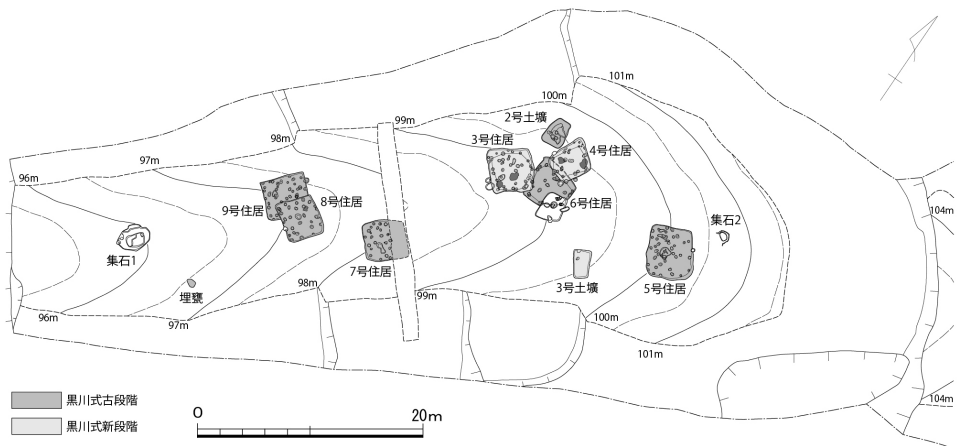


図6 福岡県杷木町クリナラ遺跡の縄文時代晩期(黒川式)の集落変遷(縮尺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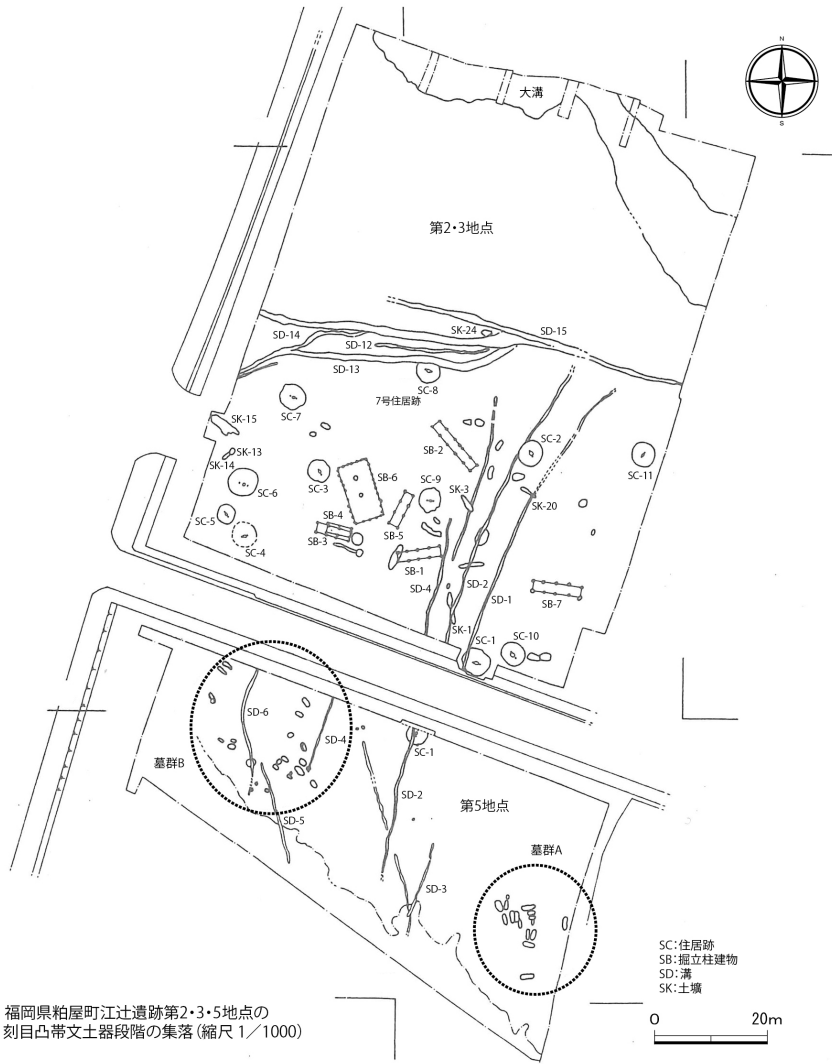


図7 福岡県粕屋町江辻遺跡第2・3・5地点の刻目凸帯文土器段階の集落(縮尺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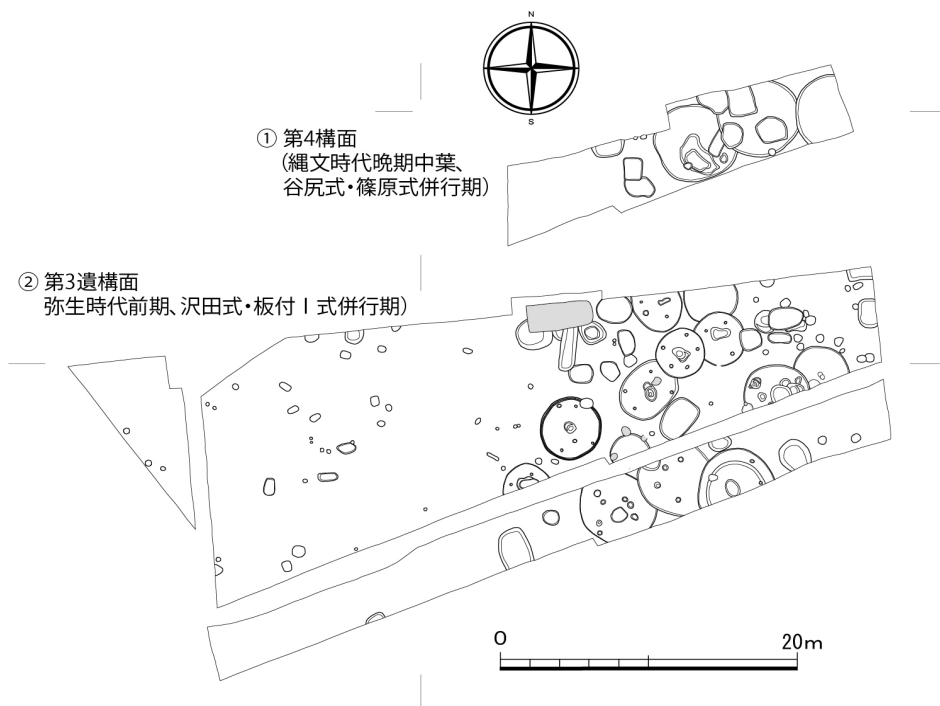


図8 徳島県阿南市宮ノ本遺跡の縄文時代晩期中葉と板付Ⅰ式併行期の集落(縮尺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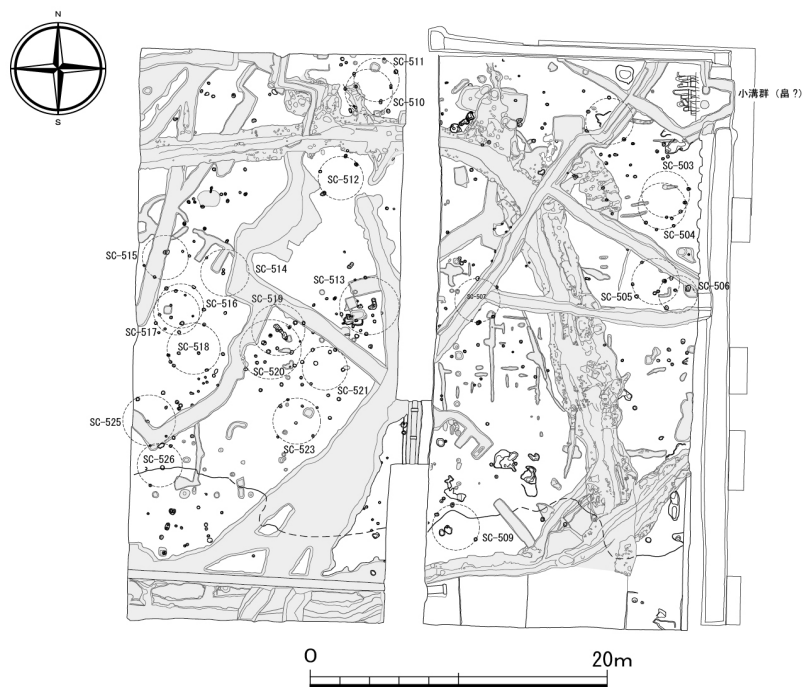


図9 愛媛県松山市文京遺跡45次調査の刻目凸帯文土器段階の集落(縮尺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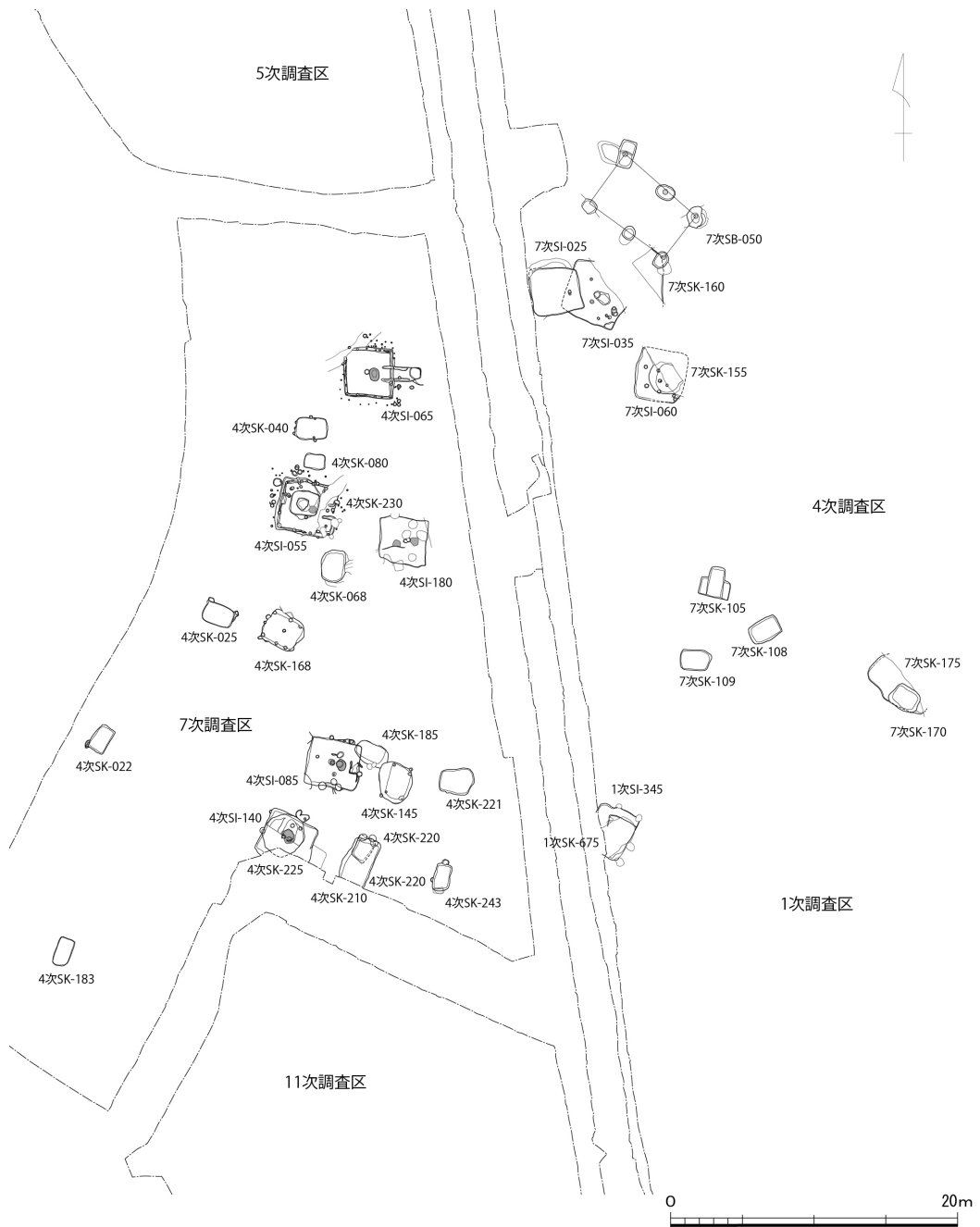


図10 福岡県太宰府市前田遺跡の弥生時代前期初頭～中葉(板付Ⅰ～Ⅱ式古段階)の集落(縮尺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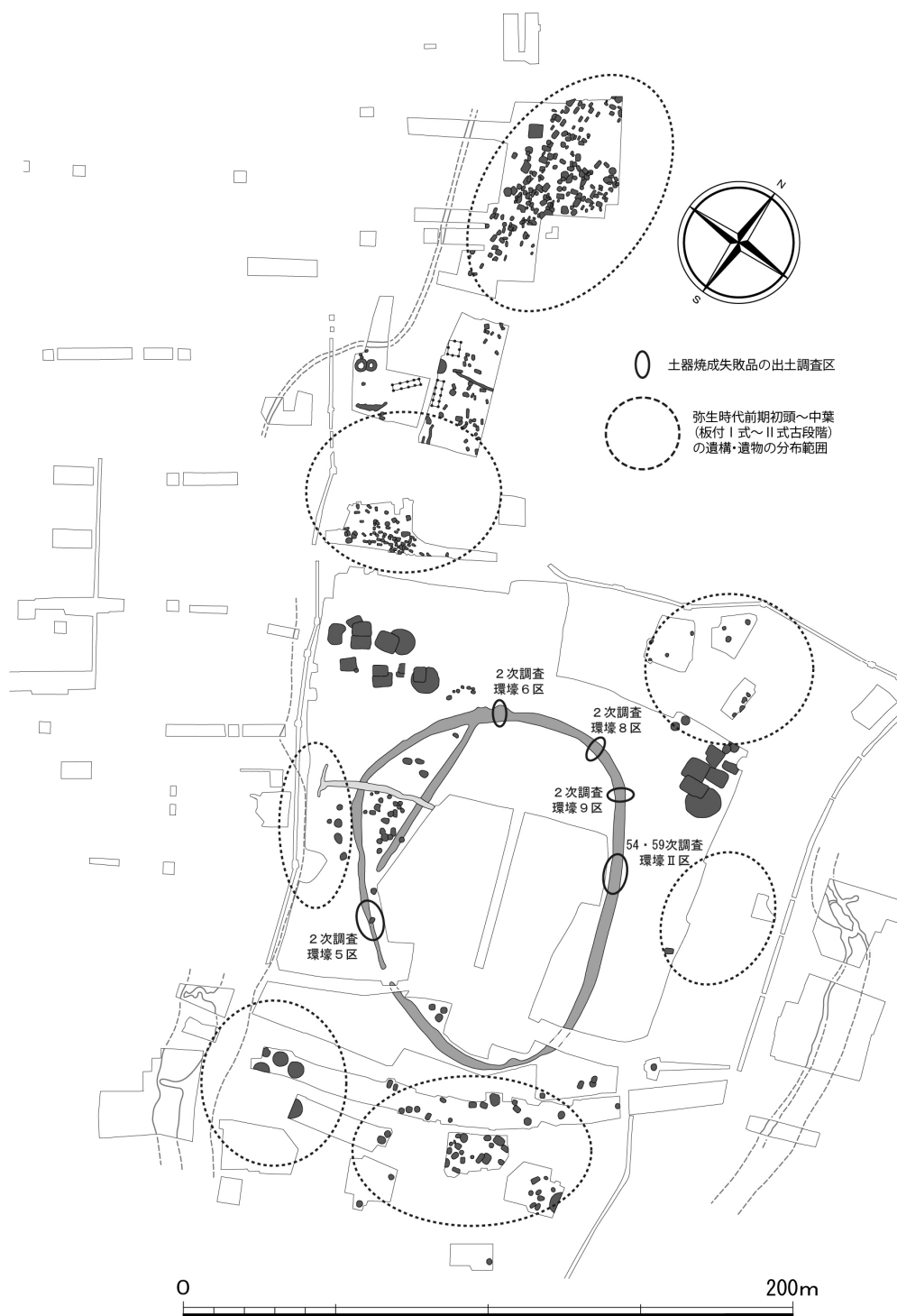


図11 福岡県福岡市板付遺跡の刻目凸帯文土器(夜臼式)～弥生時代前期中葉(板付Ⅰ・Ⅱ式古段階)の遺構・遺物の分布域(縮尺 1/2000)



図12 福岡県小郡市津古・三沢遺跡群における弥生時代前期~中期初頭の集落遺跡分布

- 調査区(弥生前期~中期初頭の遺構確認) 丘陵 河川・溜池
調査区(当該期の遺構なし及び未確認) 沖積低地面
- 1: 津古片管集, 2: 津古空前, 3: 津古内畑, 4: 津古東宮原, 5: 津古狸原, 6: 津古西台, 7: 津古中台, 8: 津古東台, 9: 津古, 10: 種畜場A~E・R区, 11: 種畜場F~J区, 12: 種畜場A~E・R区, 13: 津古京江ヶ浦, 14: 津古土取, 15: 津古生掛, 16: 津古中野, 17・18: 津古脇田, 19: 三國の鼻, 20: 横隈北田, 21: 横隈井の浦, 22: 三沢東古賀, 23: 横隈鍋倉Ⅱ区, 24: 横隈鍋倉Ⅰ区, 25: みくにの鼻, 26: 横隈狐塚Ⅰ~Ⅳ区, 27: 横隈狐塚Ⅴ区, 28: 三沢逢ヶ浦D区, 29: 三沢逢ヶ浦F区, 30: 三沢逢ヶ浦G区, 31: 三沢逢ヶ浦C区, 32: 三沢逢ヶ浦B区, 33: 三沢逢ヶ浦E区, 34: 三沢逢ヶ浦A区, 35: 三沢公家隈, 36: 三沢逢ヶ浦C区, 37: 三沢逢ヶ浦3a・b区, 38: 横隈山2地点, 39: 横隈山1地点, 40: 横隈山3地点, 41: 横隈山5地点, 42: 横隈山4地点, 43: 三沢北中尾2区, 44: 三沢北中尾3区, 45: 三沢北中尾1区, 46: 三沢北中尾4・5区, 47: 横隈山6・7地点, 48: 横隈山1区, 49: 三沢古賀, 50: 三國小学校1・2次, 51: みくに保育所, 52: 力武宮脇, 53: 力武, 54: 力武宮ノ前, 55: ハサコの宮Ⅰ地点, 56: ハサコの宮Ⅱ地点, 57: 一の口Ⅱ地点, 58: 鈴隈, 59: 松尾口B地点, 60: 北松尾口Ⅳ地点, 61: 北松尾口Ⅲ地点, 62: 北松尾口Ⅱ地点, 63: 北松尾口Ⅰ地点, 64: 松尾口A地点, 65: 一の口Ⅰ地点, 66: ハサコの宮B地点, 67: ハサコの宮A地点, 68: 牟田々, 69: 牟田々, 70: 栗原Ⅰ・Ⅱ区, 71: 栗原Ⅲ~Ⅴ区, 72: 上棚田, 73: 三沢上棚田1・2区, 74: 三沢上棚田3区, 75: 三沢中棚田, 76: 宮浦, 77: 西隈, 78: 三沢宮ノ前, 79: 三沢南馬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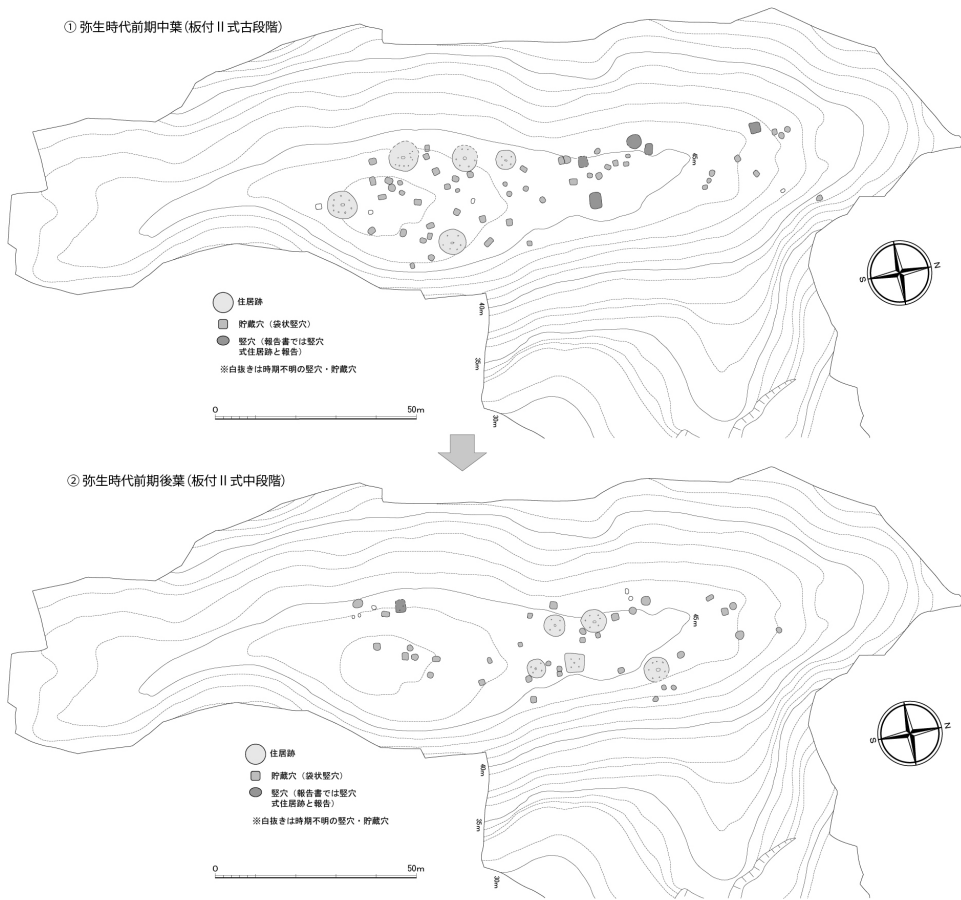


図13 福岡県小郡市津古・土取遺跡における弥生時代前期中葉～後葉の集落変遷(縮尺 1/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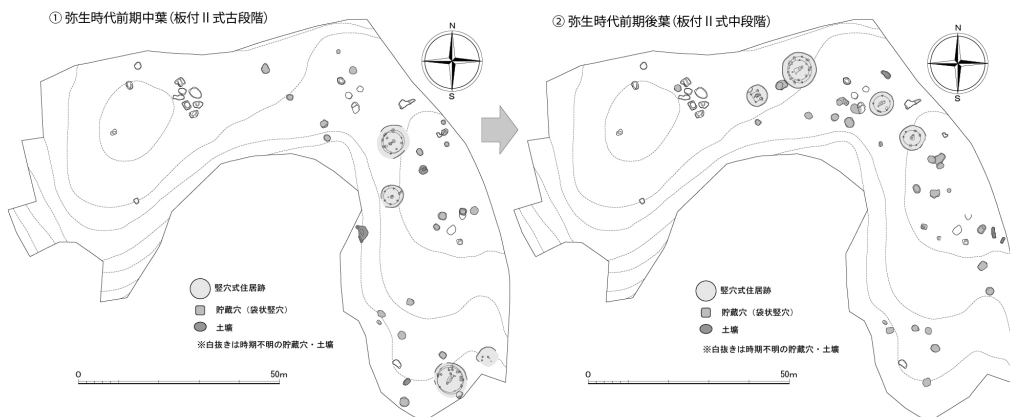


図14 福岡県小郡市三沢・蓬ヶ浦遺跡における弥生時代前期中葉～後葉の集落変遷(縮尺 1/1500)





図16 福岡県小郡市一ノ口遺跡における弥生時代前期末の集落 (縮尺 1/1500)



図17 三重県松坂市筋違遺跡の弥生時代前期(板付Ⅱ式中段階併行期)の洪水で埋没した集落(縮尺1/500)



図18 三重県松坂市筋違遺跡の集落域全景(東か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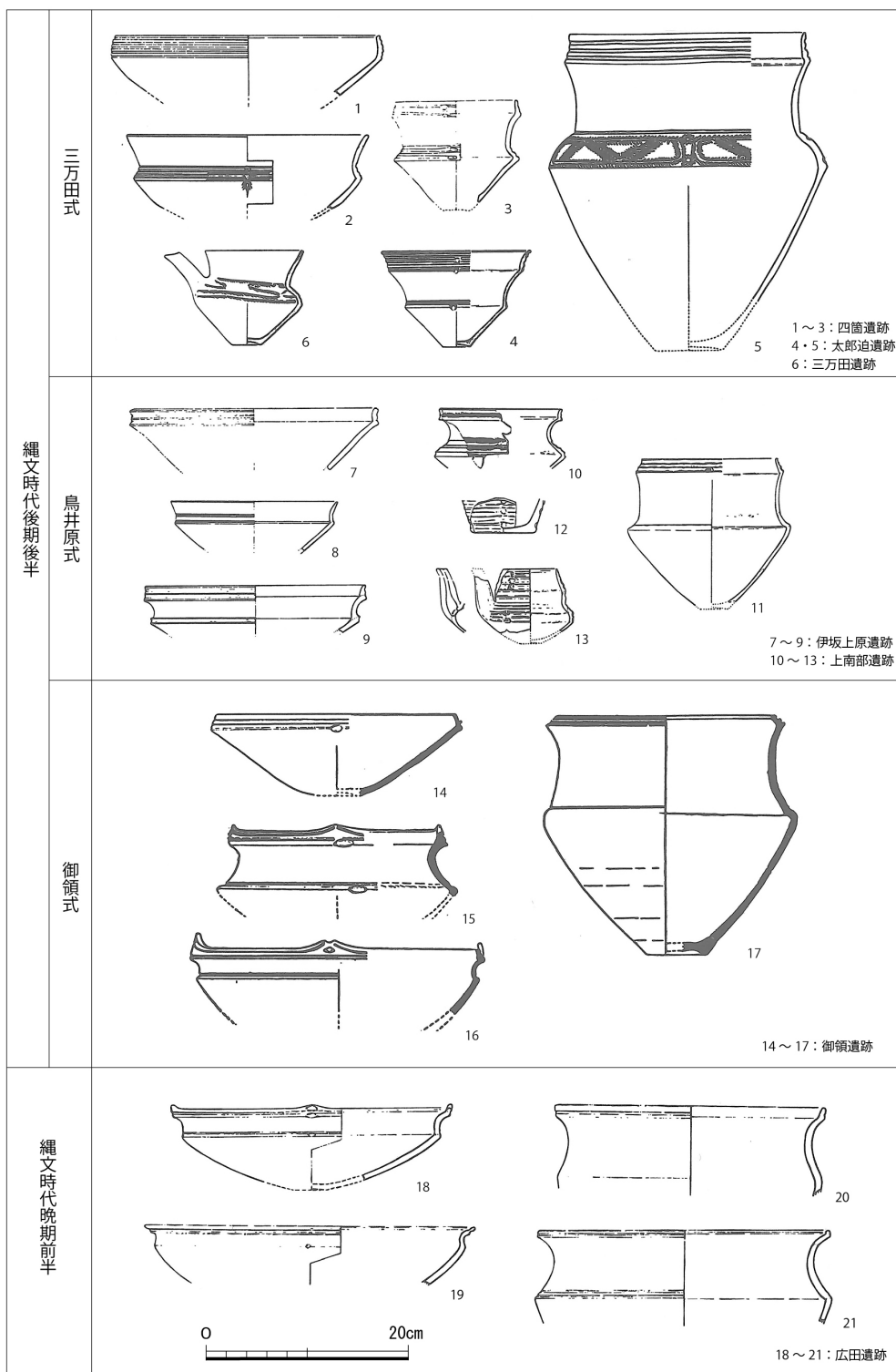


図19 縄文時代後期後半～晩期前半の土器の変遷(水ノ江1997より作成、縮尺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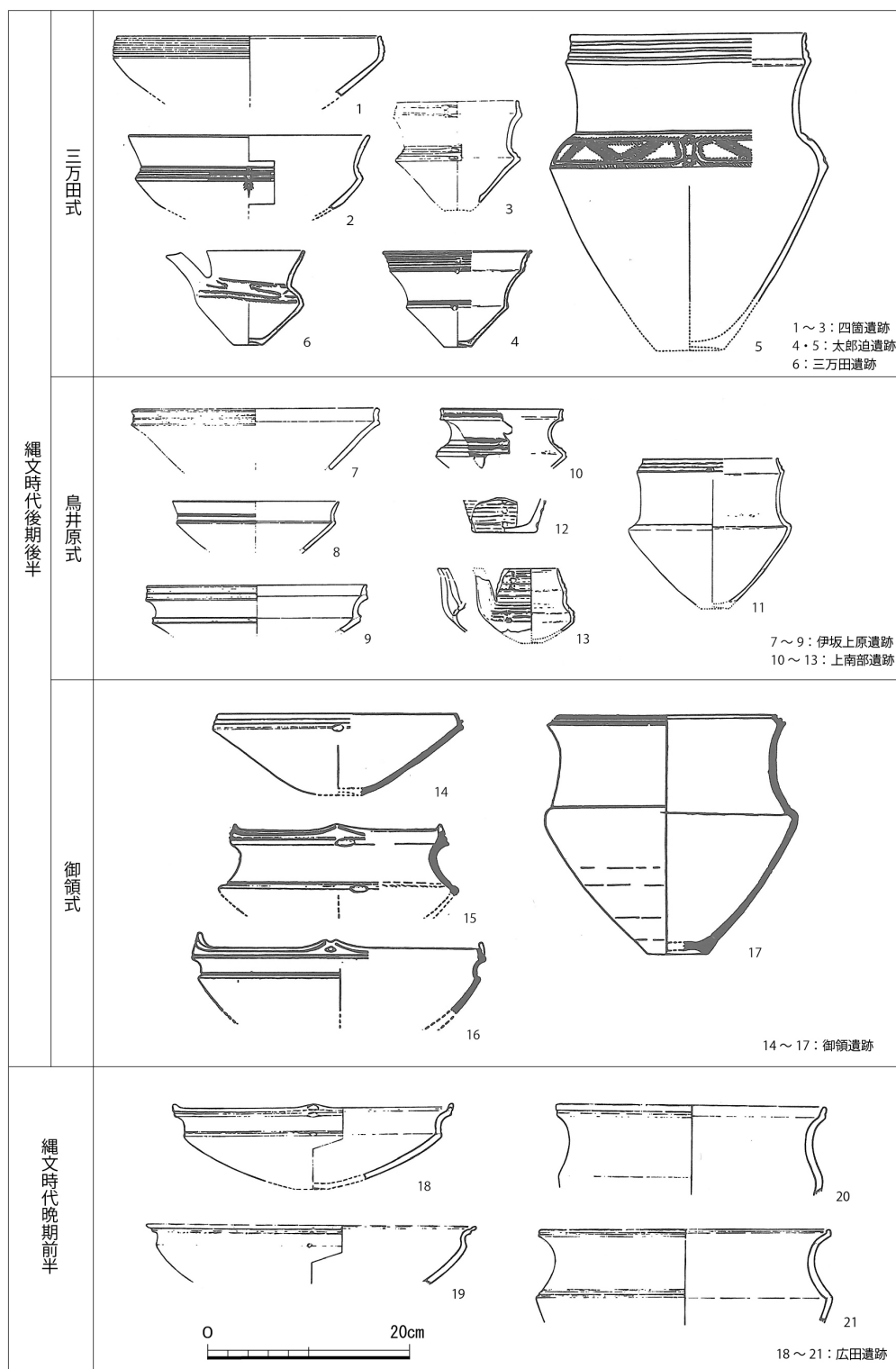


図19 縄文時代後期後半～晩期前半の土器の変遷(水ノ江1997より作成、縮尺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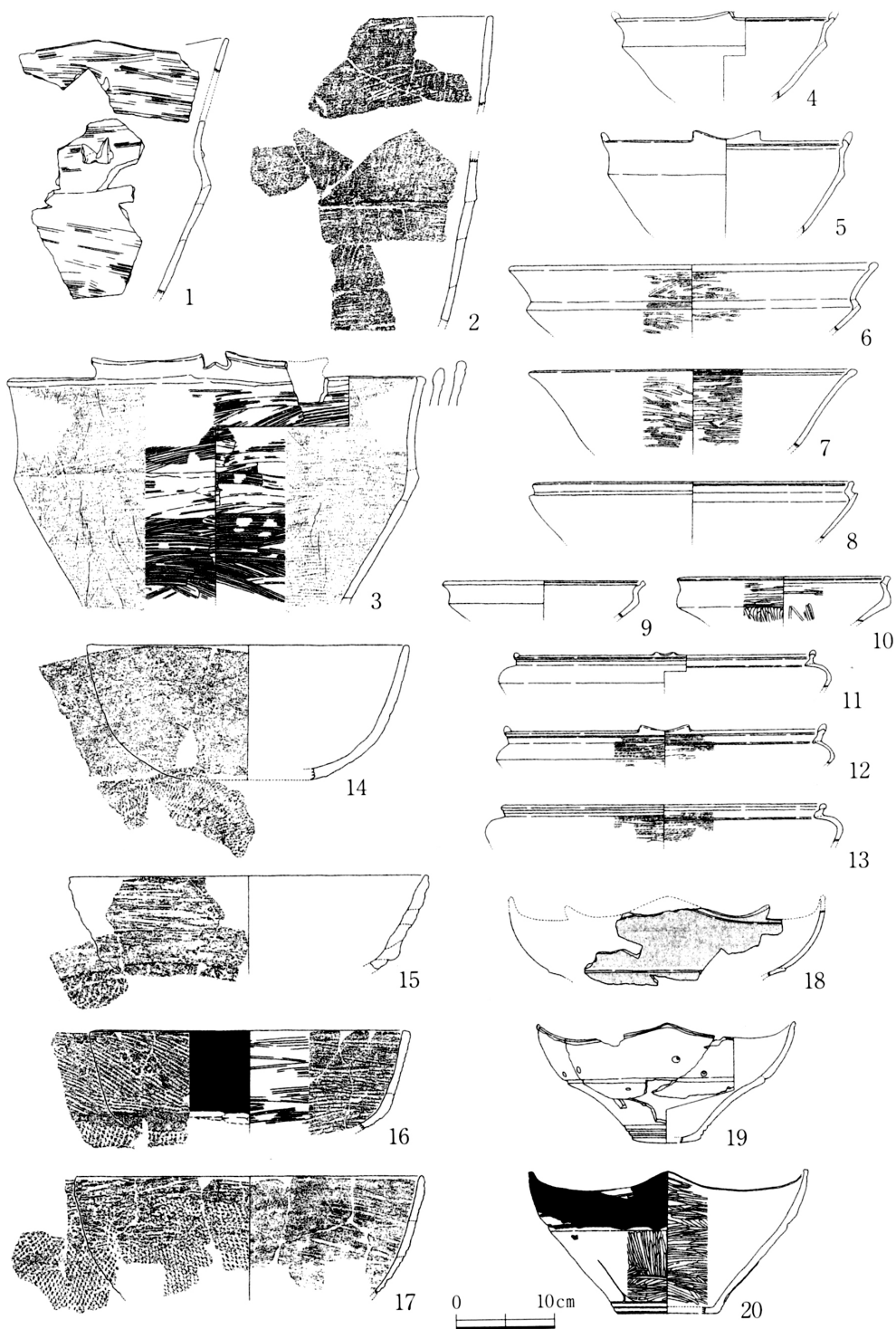


図20 長崎県南島原市権現原遺跡出土の黒川式土器(縄文時代晩期中葉)(水ノ江2012より作成、縮尺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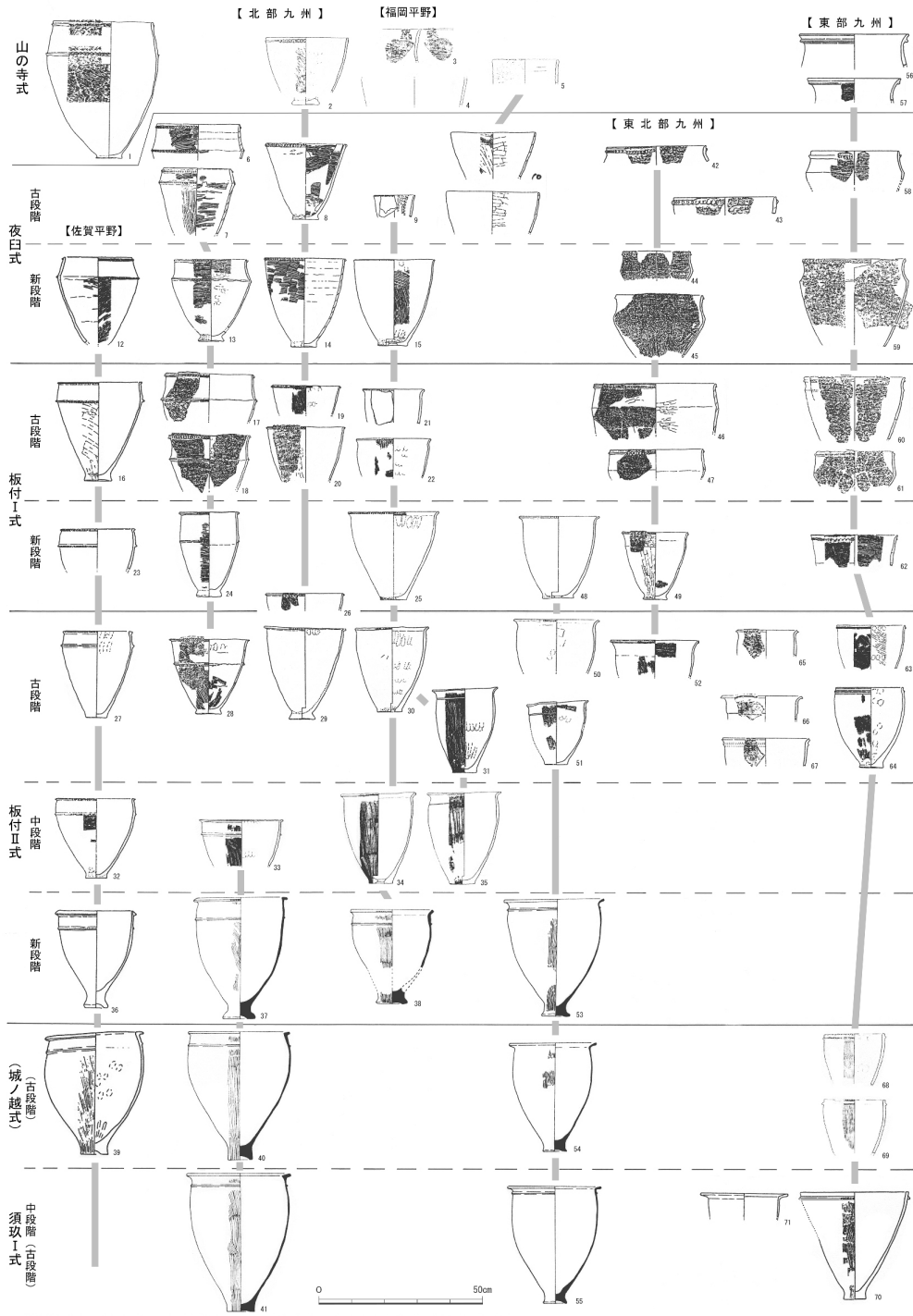


図21 刻目凸帯文土器(山の寺式・夜臼式)～弥生時代前期(板付Ⅱ式)の深鉢・甕形土器の変遷 (北部九州～東部九州、縮尺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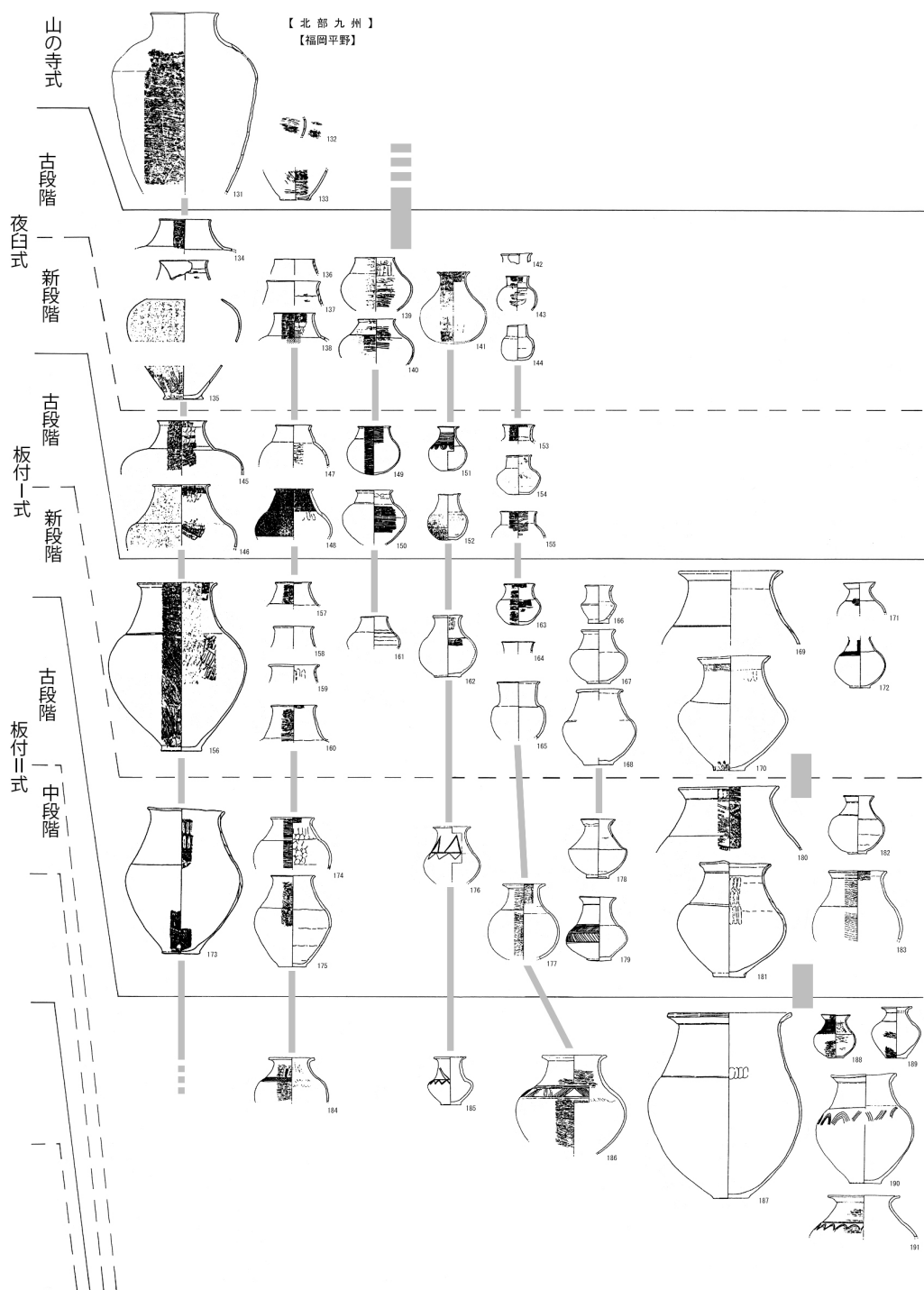


図22 刻目凸帯文土器(山の寺式・夜臼式)～弥生時代前期(板付Ⅱ式)の壺形土器の変遷(北部九州、縮尺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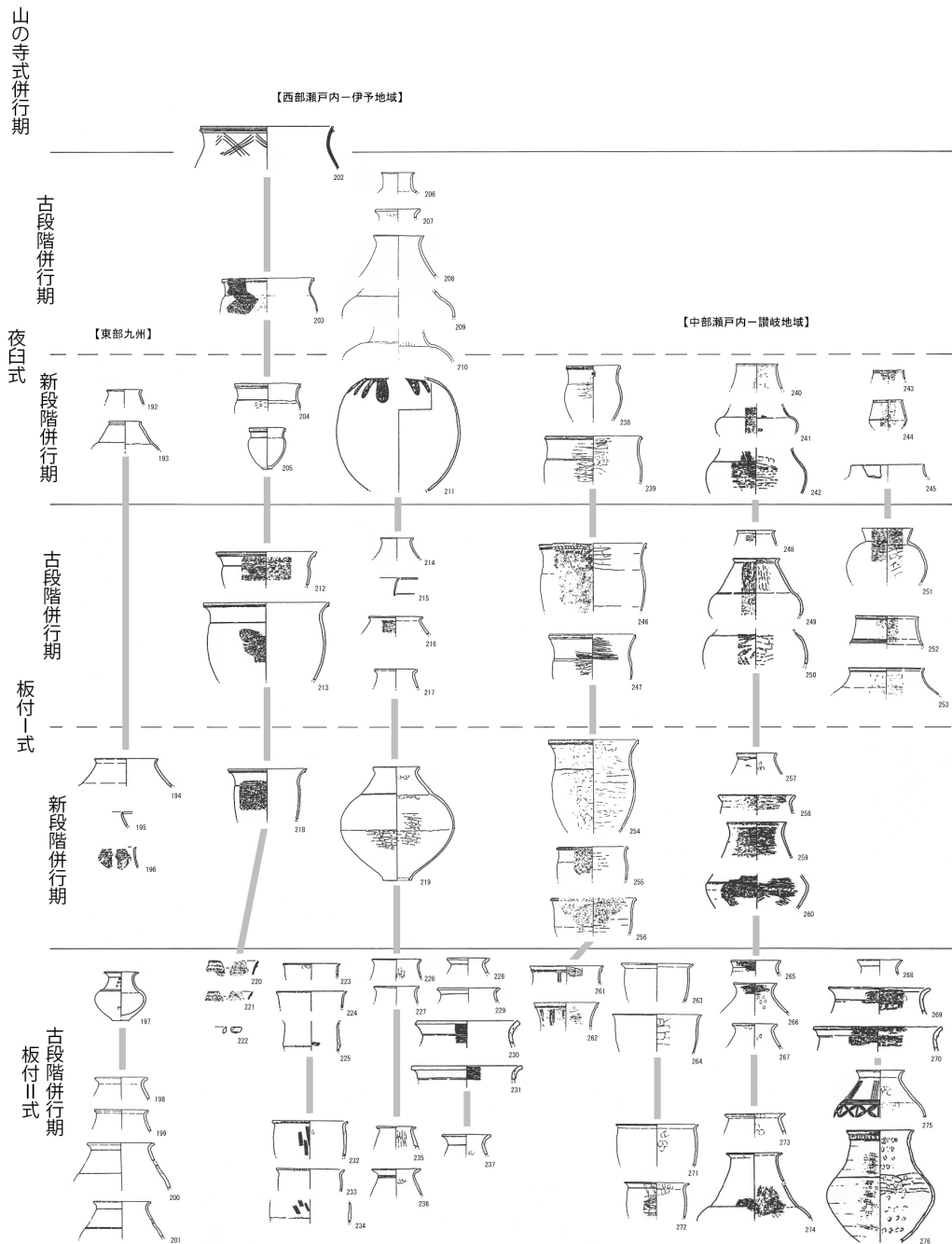


図23 刻目凸帯文土器(山の寺式・夜臼式)～弥生時代前期(板付Ⅱ式)併行期の深鉢・甕形・壺形土器の変遷(東部九州～西・中部瀬戸内、縮尺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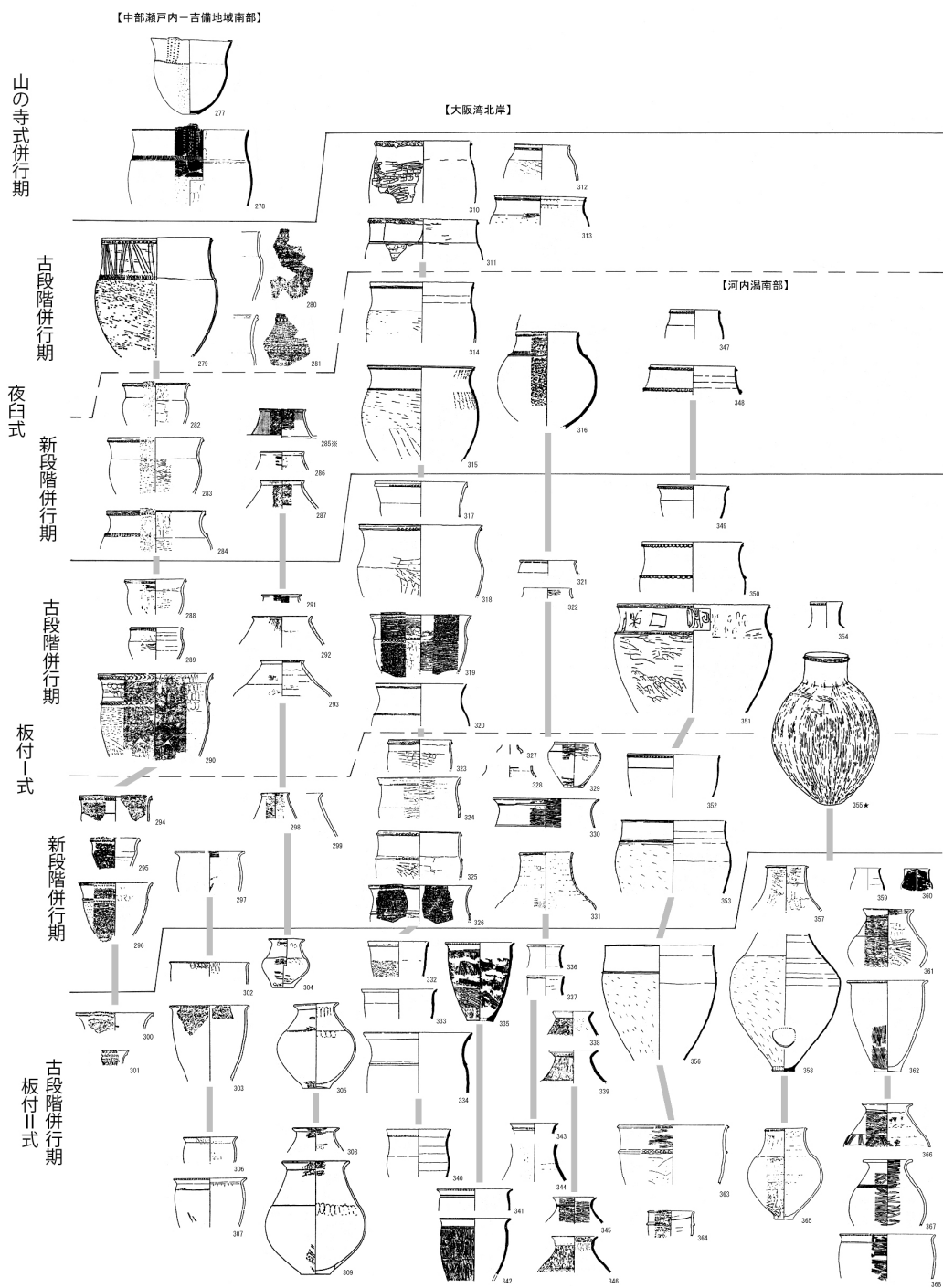


図24 刻目凸帯文土器(山の寺式・夜臼式)～弥生時代前期(板付Ⅱ式)併行期の深鉢・甕形・壺形土器の変遷(中部瀬戸内～大阪湾沿岸、縮尺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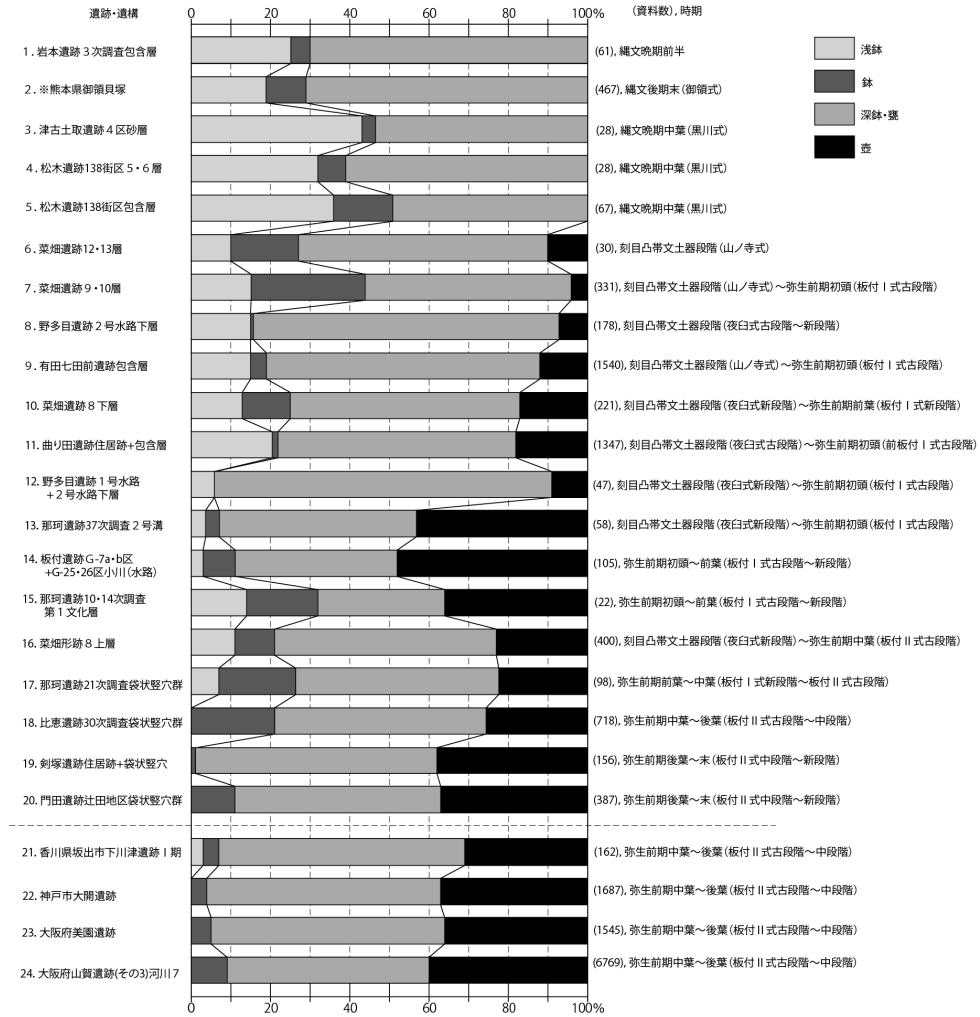


図25 縄文時代後期～弥生時代前期の器種組成の変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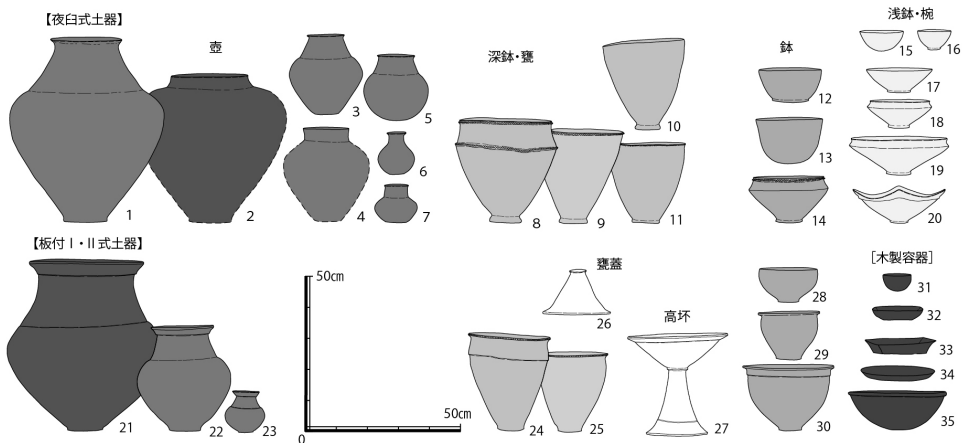


図26 夜臼式土器と板付Ⅱ式土器の器形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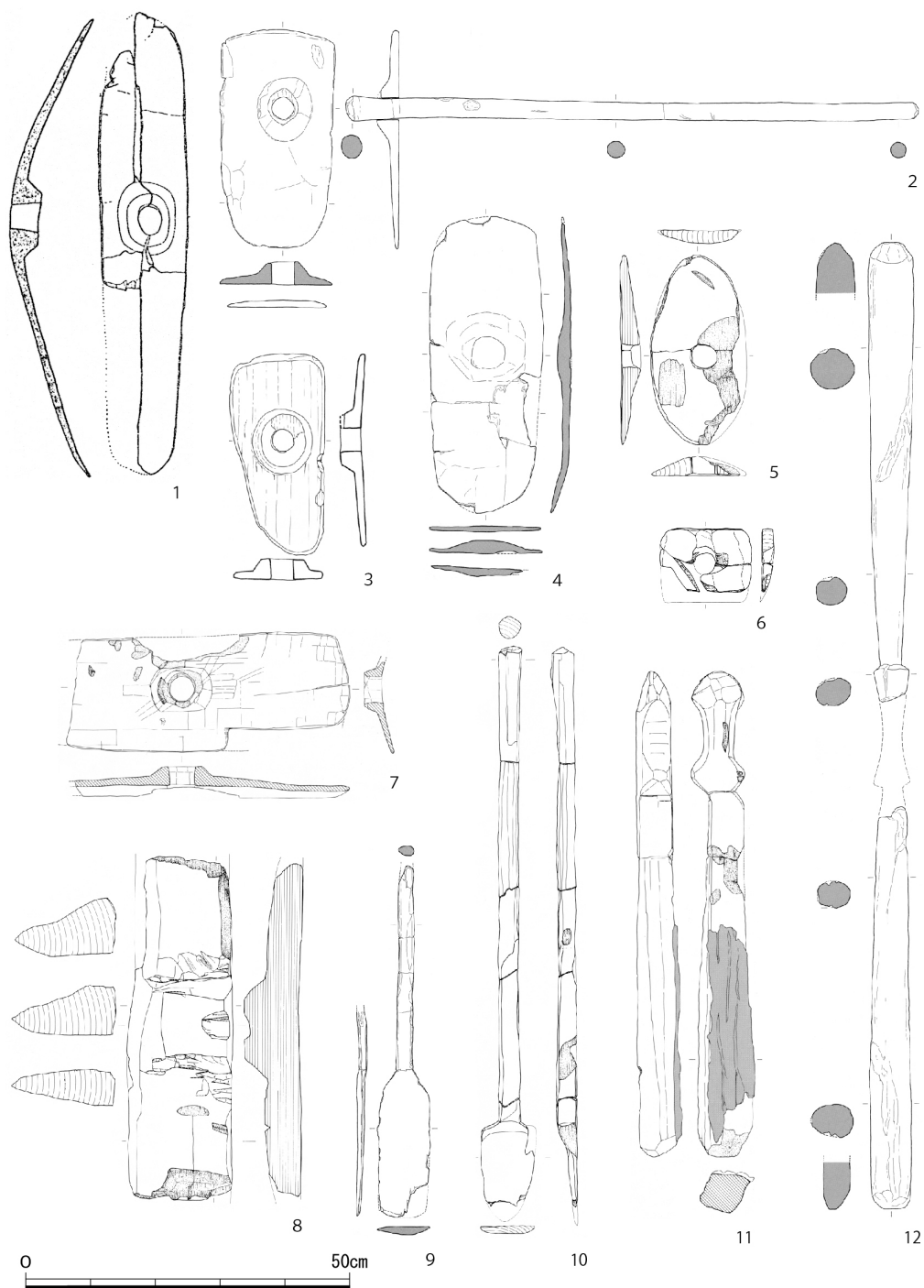


図27 北部九州における刻目凸帯文土器(夜臼式)~弥生時代前期前葉(板付Ⅰ式)の木製農工具
 (1:福岡市 鶴町, 2・4・9・12:福岡市 雀居4次調査, 3・7:唐津市 菜畑, 5・6・8・10:福岡市 橋本一丁田2次調査,
 11:福岡市 雀居5次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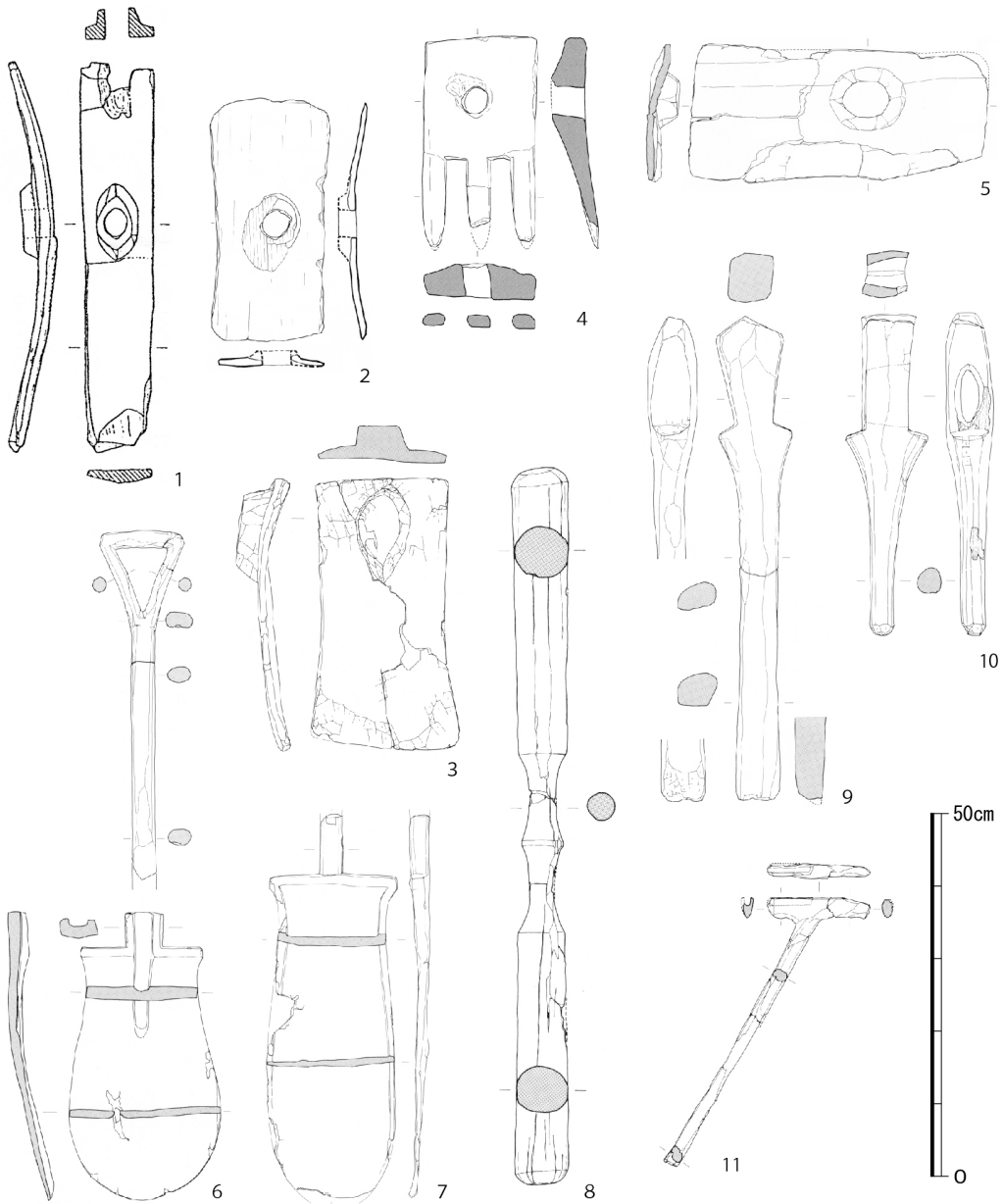


図28 北部九州における弥生時代前期中葉～後葉(板付Ⅱ式古段階～中段階)の木製農具
(1:福岡市 比恵4次調査, 2:唐津市 菜畑, 3・5～7・9～11:福岡市 比恵25次調査, 4:福岡市 雀居4次調査,
8:福岡市 比恵26次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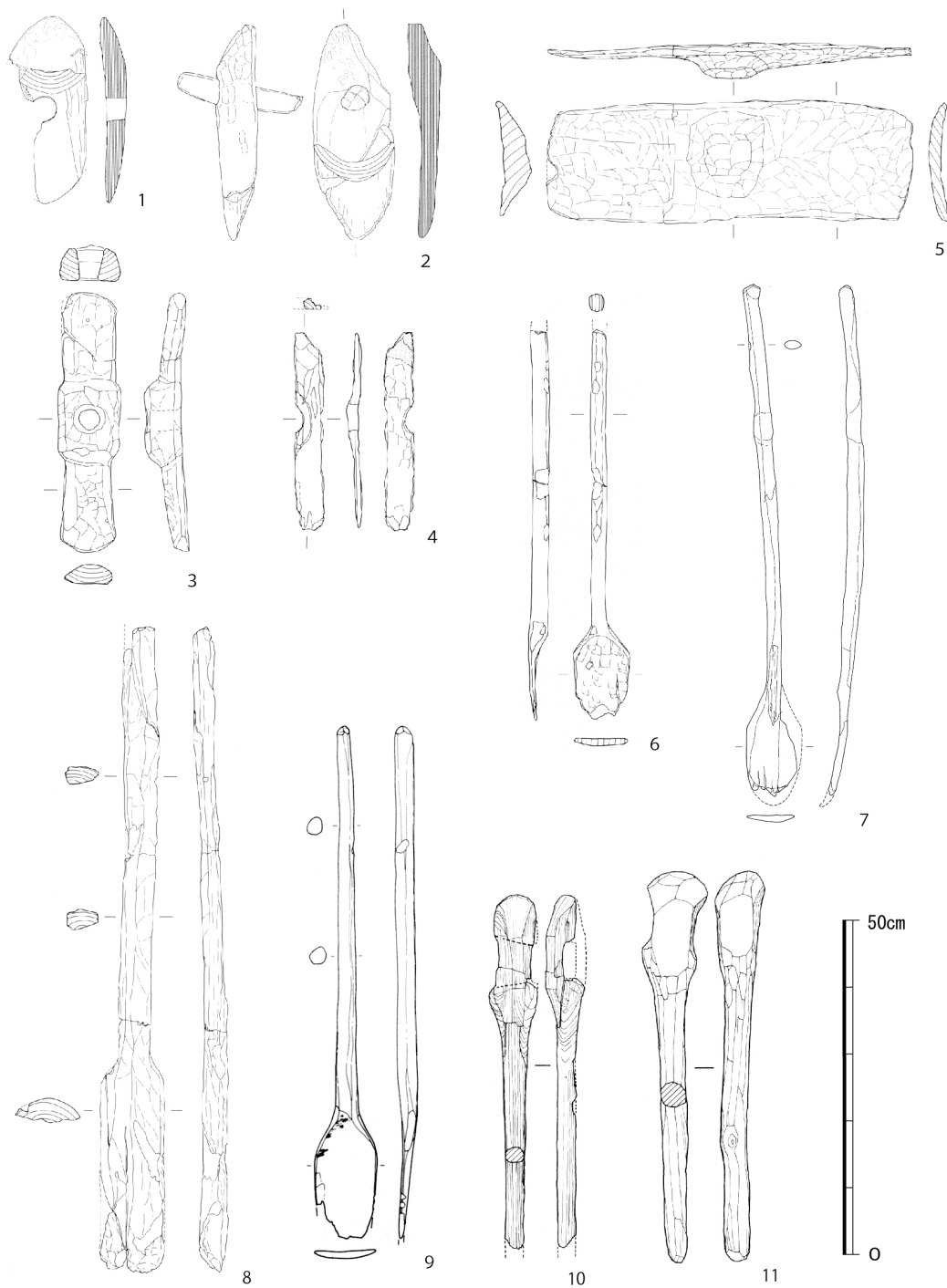


図29 瀬戸内・近畿における縄文時代晩期～弥生時代前期前葉(板付Ⅰ式併行期)の木製農工具
(1・2:土佐市居徳, 3～6:高松市林・坊城, 7:丸亀市平池南, 8:倉敷市菅生小学校裏山,
9:高松市サコ・長池, 10・11:大津市滋賀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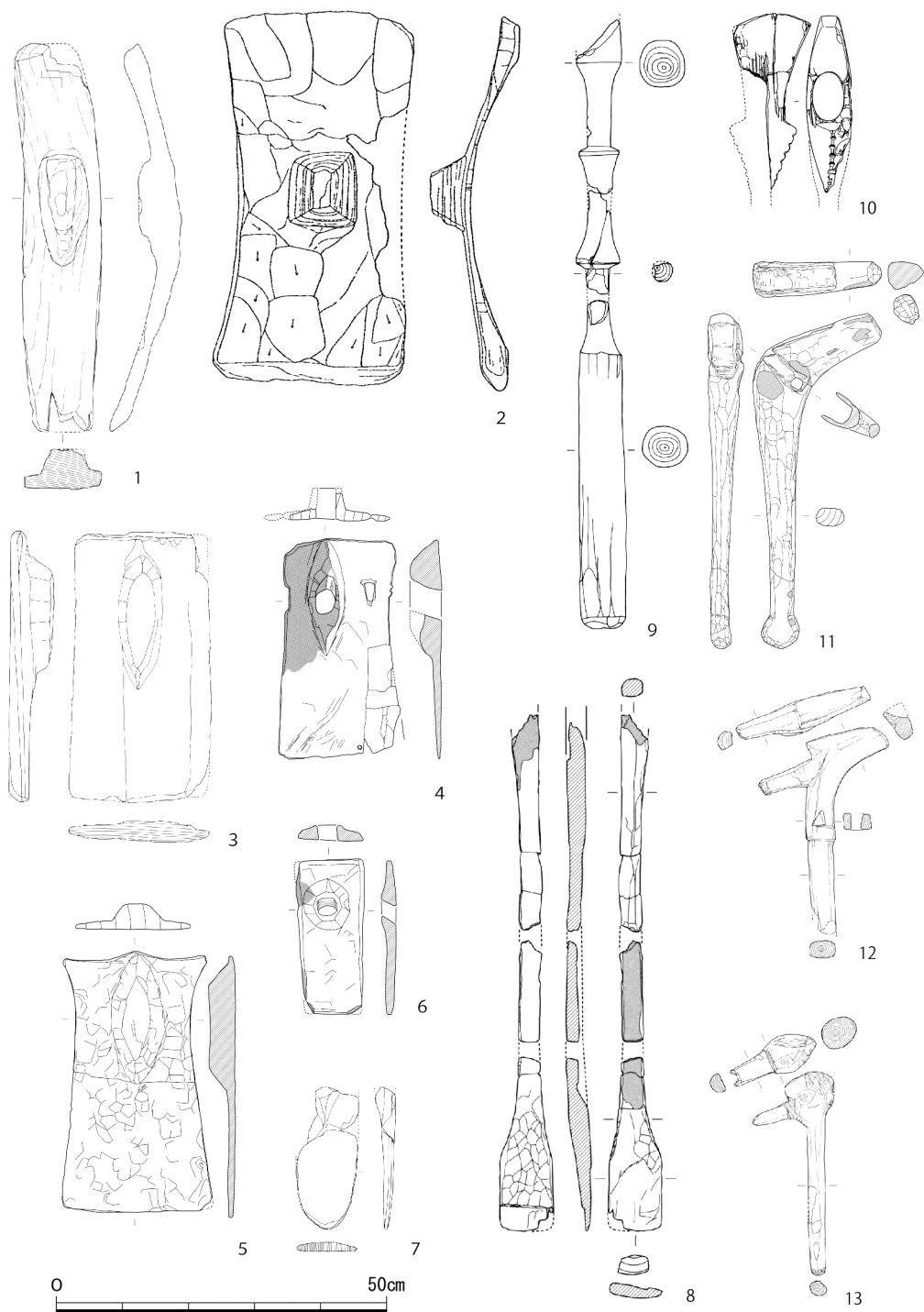


図30 瀬戸内・近畿における弥生時代前期中葉～後葉(板付Ⅱ式古段階～中段階併行期/長原式～第Ⅰ様式古・中段階併行期)の木製農具(1・12・13:八尾市 木の本, 2:今治市 松の木, 3・7・9:岡山市 百間川・原尾島, 4～6・8・11:今治市 阿方, 10東大阪市 水走・鬼虎川)